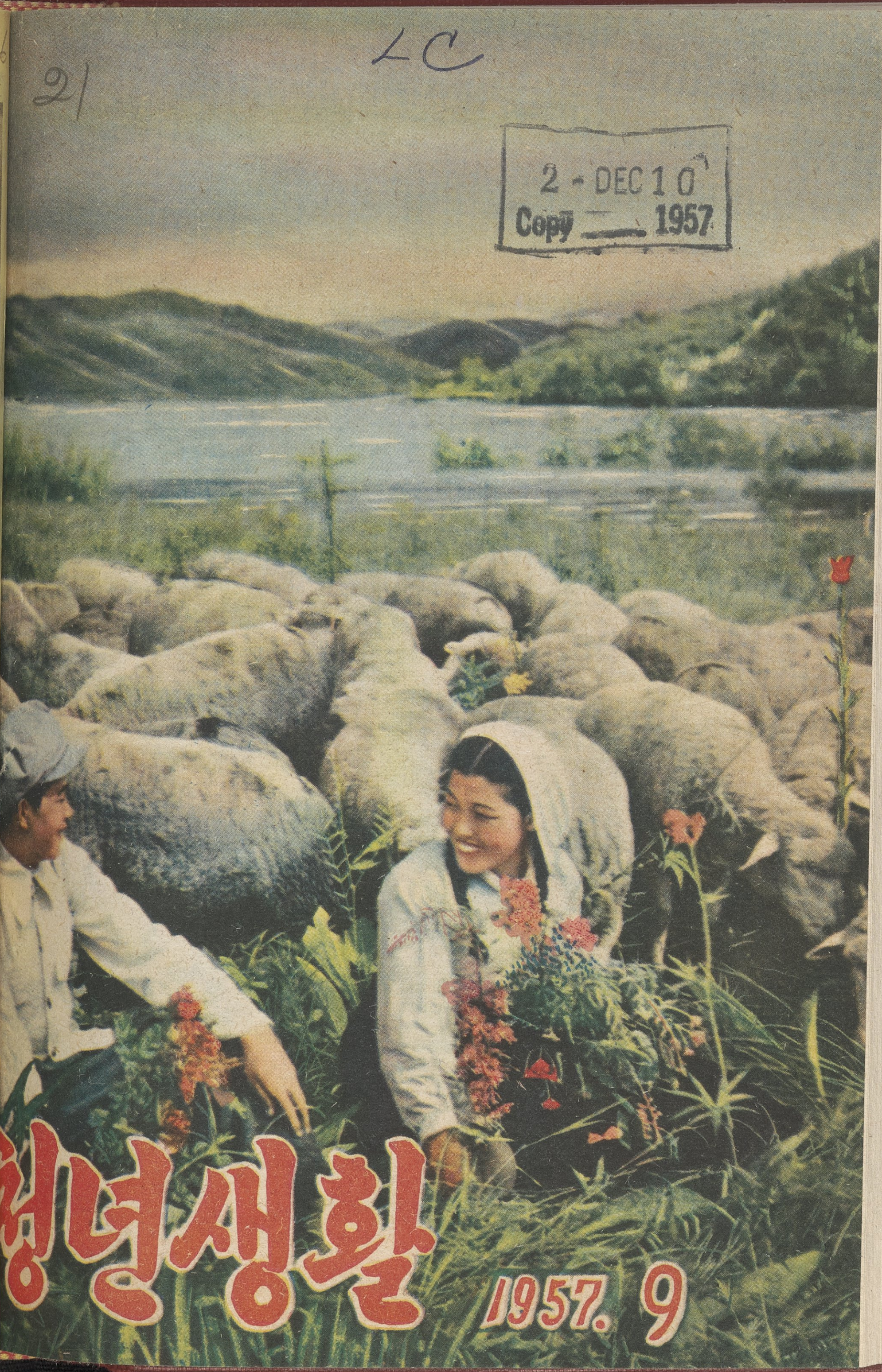


청년생활

1957. 9



흑룡 탄광 청년 돌격 대원들의 굴진 작업

청년생활

1957 **9**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차 례







우리 생활의 위대한 전진

—로동당이 하는 일에 인민을 위하지 않는 일은 없다.

—로동당이 내 세우는 일은 되지 않는 일이 없다.

거대한 사업을 앞두거나 또 그 사업이 승리로 끝났을 때, 또는 일상적으로 우리 인민들과 청년들 속에서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주고 받는다.

이 말은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 정책의 정당성, 그의 인민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믿는 우리 인민들의 소박한 감정이며 당과 정부에 대한 굳은 신뢰의 표현이다. 동시에 이 말 속에는 로동당과 정부의 부름에 언제나 충직할 결의와 자랑이 담겨져 있다. 실로 지난 기간 로동당의 령도를 받는 우리 인민들과 청년들은 아직 한번도 자기가 내 세운 과업을 실천하지 못한 적이 없으며 자기의 맹세를 어기여 본 적이 없다. 얼마전에 발표된 1957년 상반년 인민 경제 계획 실행 총화도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제 1차 5개년 계획은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토대를 축성하며 농업의 협동화를 완성함으로써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경제적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며 동시에 인민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기본 과업으로 내 세웠다. 원수들은 이 계획을 믿지도 않으며 리해하지도 못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부 사람들까지도 자재, 자금, 상품 원천의 해결에서 제기된 일련의 난관 때문에 1957년도에 예견된 계획 과제를 완수하지 못한다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생활은 자기의 전진의 길에서 이와 같은 잡고대를 박차고 나갔다. 1957년 상반년에 국가 및 협동 단체 공업 총 생산액 계획을 112%로, 근로자들 자신이 맹세한 증산 과제를 포함한 계획은 102%로 초과 완수하였다. 이것은 지난해의 동기간에 비하여 141%의 장성으로 된다.

로동 생산 능률의 계획은 113%로 초과 실행되였는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121%로 장성된 것이다.

1957년 공업 생산품의 원가는 전년도 평균 원가에 비하여 11.6%, 1957년 상반년 계획 원가에 비하여서는 5.3%가 저하되였다.

1957년 상반년 계획 실행 총화는 농촌 경리 부문에서도 빛나는 승리를 보여 주었다.

금년도 파종 면적은 전년 동기에 비하여 12만 5천 정보가 더 증가 되였다. 그리고 90여일의 장기간에 걸친 혹심한 가물을 극복하면서 모내기를 보장하였다. 그리하여 금년도 알곡 증산 목표 340만톤을 능히 실현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보여 주고 있다.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은 계속 향상되고 있는바 금년 상반년에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화폐 임금이 작년 상반년에 비하여 52% 증가되였으며, 향상되는 인민 생활의 수준을 반영하는 국영 및 협동 단체 소매 상품 류통 계획은 119%로 초과 수행되였다. 이것은 작년 같은 기간의 대비 가격으로 174%의 장성으로 된다.

제 1차 5개년 계획의 실행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적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되며 우리 혁명 위업의 획기적인 전진의 단계로 된다. 그런데 바로 이 5개년 계획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금년도 상반년 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였다는 것은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되며 우리 생활의 위대한 전진으로 된다.

우리 인민들이 창조한 기적을 경탄의 눈으로 바라 보는 외국 손님들은 한결같이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을 찬양하고 있다.

우리 인민의 이 위대한 승리는 무엇을 의미 하는가. 그것은 우선 조선 로동당의 경제 정책, 특히 로동당 제 3차 대회가 제시한 총 로선과 그의 구체적 실행 방도를 명시한 로동당 중앙 위원회 1956년 8월 및 12월 전원회의 결정들의 정당성과 그의 위대한 생활력을 확증해 주고 있다.

오늘의 현실은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견지하면서 농업과 경공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로동당 경제 정책의 총 로선의 정당성을 더욱 확증하고 있다.

이 정확한 정책은 혹심하게 파괴 되였던 인민 경제를 급속히 복구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인민 경제의 새로운 앙양의 물질적 토대를 튼튼히 구축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 정확한 정책은 여지 없이 령락 되였든 인민 생활을 짧은 기간내에 현저히 개선 향상시켰으며 우리 인민들과 청년들의 무진장한 창조적 재능과 열성을 불러 일으켰다.

바로 이와 같이 현실 생활은 자기의 궤도를 따라 전진하고 있으며 종파 분자들의 헛된 잡고대에 대하여 날카롭게 조소하고 있다.

금년도 상반년 계획의 빛나는 승리는 또한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인민에 의거하여 그의 애국적 열성과 창조적 지혜를 동원하여 난관을 극복하는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시종 일관한 방침의 새로운 승리를 의미하며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주위에 전체 인민들과 청년들이 철석같이 통일 단결되였다는 명백한 시위로 된다. 특히 로동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의 결정을 침투하며 실천하는 행정에서 문제를 직접 근로자들 속에서 대중적으로 토의함으로써 대중의 무궁 무진한 창발성과 적극성이 발휘되여 인민 경제의 광범한 예비를 적발 동원할 수 있었다. 결과 년초에 제기되였던 일련의 난관, 즉 재정, 자재, 상품 원천 등의 계획에서의 긴장성은 풀리기 시작하였으며 오늘에 와서 이 문제는 새로운 앙양의 단계에 드러서게하였다.

진정으로 인민을 위한 정책은 언제나 인민들 속에서 무진장한 창조력을 자아 내며 어떠한 난관이라도 능히 극복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동시에 당과 인민과의 굳은 련계와 당과 정부주위에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통일을 파괴할 힘은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로동당 중앙 위원회 1956년 8월 전원 회의에서 폭로 되였고 그 후 그의 죄상이 더욱 폭로 되여가고 있는 최 창익, 박 창옥, 서 휘, 윤 공흠, 리 필규 등 반당 종파 분자들의 시도가 완전히 무용한 것임을 실증한다. 탐위와 권세에 눈이 어두운 극도로 타락한 이 반당 종파 분자들은 인민 대중속에서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위신을 훼손시키며 당과

인민 대중을 리탈시키기 위하여 흉악한 암해 책동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생활은 반당 종파 분자들의 시도를 박차고 전진하고 있으며 종파분자들은 이 위대한 생활의 거류에 부닥쳐 산산히 부서져 가고 있다.

로동당이 인도하는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철석 같은 단결과 불패의 힘으로 약동하는 우렁찬 전진을 가로 막을 힘은 없다. 우리는 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가장 곤난한 고비를 넘어 서서 우리 인민 경제의 새로운 앙양의 단계를 걷고 있다. 이것은 제 1차 5개년 계획도 넘쳐 실행 할 수 있다는 신심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쇠퇴와 몰락의 일로를 걷고 있는 미제와 리 승만 통치하의 남조선 경제 형편을 볼 때 우리의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승리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더욱 똑똑히 알 수 있다.

남조선의 경제 형편에 대하여 미국 《나나》통신 기자 존, 레딘까지도 지난 6월 2일부 《한국 일보》에 다음과 같이 썼다. 《한국의 경제적 딜렘마 (모순)는 다음의 두개의 수'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1956년에 한국은 2,500만 딸라에 해당하는 물자를 수출 하였고 3억 4천만 딸라에 해당하는 물자를 수입하였다. 한국은 수출량의 15배 이상을 수입한 것이다. 여하한 국가이고 간에 수 출입 차액에 있어서 그와 같은 믿을수 없는 간격은 재난을 가져온다.》 그리고 이 기자는 량곡 생산의 감소로 인하여 남조선이 겪고 있는 극심한 식량난에 대하여 《이 나라는 64만톤이나 부족한 량곡을 가지고 1957년을 맞이 하였다. 이것은 한국 인구를 매일 최소 한도로 급식시키는 데 필요한 량 보다 15%나 부족한 량이다. 한국은 미국의 잉여 농산물로써 급식할 도리 밖에 없게 되였다. 그러나 한국은 그것을 구매할 만한 자금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더 많은 부채를 의미한다》 라고 썼다. 이는 다름아닌 미국 기자의 말이며 리 승만 도당이 허용하는 신문에서의 말인바 이로서만도 남조선의 경제 형편이 어떠하며 인민 생활이 어떠할 것인가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인도 신문 《타임스 오브 인디아》지 기자는 남조선을 시찰하고 남조선을 가리켜 《죽음의 땅, 죽어가는 땅》 이라고 한 것은 우연하지 않다.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성과는 억압과 착취에 신음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투쟁과 리 승만 매국 도당을 반대하는 투쟁을 고무하며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는 강력한 힘으로 된다.

오늘 우리의 성과가 아무리 크다 하드라도 우리 혁명 수행을 위한 첫 발'자욱에 불과하다. 아직도 우리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제 1차 5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의 최대의 념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 위업을 촉진 시켜야 한다. 우리는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에 의거하면서 농업과 경공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로동당 경제 정책을 받들고 계속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자기의 모든 정열과 지혜를 다하여 계속 생산의 내부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며 선진 기술과 기계화를 도입하기 위하여 완강히 학습하며 실험하며 기술적 개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해야 한다.

청년들은 로동 생산 능률과 설비 리용률을 계속 높이며 자재와 원료 및 연료, 그리고 전력 소비를 극력 절약함으로써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하여 노력 할 것이다.

전체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며 높은 로력적 열성과 고도의 창발성을 다하여 금년도 계획을 성과 있게 수행하자!

꽃다발 묶어서

마 우 룡

안전모을 쓰고 또 벗어든 젊은이들
버럭산을 건정 건정 넘어선다
들국화 곱게 핀 언덕바지 속보판 앞에서
《우리의 명절…》 저마다 읽는다

백길 천길 땅속 깊이 묻히고
천년 만년 땅 속 깊이 잠든 것
검은 금 비'발을 캐 내는
보람찬 나날의 생활을 더듬는가

암벽을 가르고 땅뿌리를 헤치며
그 광채 이 땅 우에 비'발치게 하련
마치 수리개 날개를 펴듯
청년갱 막장으로 날아 들든 일들을

송풍기 싱싱 돌아가는 소리
어깨를 한결 추겨 드는가



안전모을 다시 한번 꾹 눌러 쓰고
서로 발돋음하며 속보를 읽는다.

《광부절을 증산으로 맞이하자!》
첫 가을 해'빛을 안은 젊은이들
천길 땅 속에서 캐 내는 불기둥
태양에 비긴단들 잘못이 있으랴!

이 광채로 하여
당은 나날이 더욱 비'발 치거늘
이 광채로 하여
조국은 나날이 더욱 밝아 지거늘

어깨를 서로 탁탁 치며
갱구에 날아 드는 젊은이들
별인양 이마에 초롱 초롱 불을 켰다
아둠을 몰러 노래를 부르며

암벽같은 가슴 동발같은 어깨로
그들은 진정 조국을 받들고 있어라
발파하여 지심을 구를 때마다
원쑤의 발판을 뒤흔들어 놓거니

조국이 자라고 번영함과 함께
우리의 살림 날로 피어감과 함께
광부여 탄부여 그대들의 공훈도 피어라
당으로 하여 우리의 주권으로 하여

들국화 곱게 피는 이 좋은 철에
행복의 언덕에서 광부절을 노래하는
그대들께 보내노라, 영광을
꽃단을 묶어서, 꽃다발 묶어서

젊은 탄부들의 자랑

무더운 여름 어느날 나는 안주 탄광을 찾아 갔다. 탄광이라고 하면 누구나 깊은 산 속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안주 탄광은 푸른 벼 포기가 싱싱 자라는 넓은 열두 삼천리'벌 한가운데 있다.

탄광이 가까워지자 권양기가 으릉 으릉 돌아가는 소리가 쉬임 없이 들려 왔다. 길'가에서 나는 한 젊은 이를 만났는데 그 젊은이는 앞장에 서 가다가 문득 서더니 《손님 여기가 탄광이예요》 하고 탄광을 자랑하는 것이 였다.

이 젊은이는 바로 안주 탄광에서 일하고 있는 리 순봉이 였다.

《어디 탈입니까?》

《안 보이세요, 저기 탄다리가 보이지요, 이쪽이 9갱이고 저쪽이 8갱이에요》

그가 대 주어서야 나는 권양기 소리가 울려 오는 먼곳의 탄다리를 찾아 내였다. 두리는 원통 논으로 둘러 있어 탄다리는 마치 바다 속의 잔교처럼 솟아 있었다.

나는 잠간 나무 그늘 밑에서 땀을 드린 다음 인차 탄광을 찾아 갔다. 탄광 정문 앞에는 《석탄 공업 부문 로동자, 기사, 기수들이여! 석탄 생산량을 더욱 증가하라! 인민 생활에 필요한 석탄을 더 많이 공급하라!》 라는 구호가 씌인 푸랑카드가 걸리여 이곳 로동자들의 기세를 말해주는 듯 힘차게 펄력이고 있었다.

나는 얼마 후 탄광 민청 위원장 길 영복 동무를 따라 9 갱구로 들어 갔다.

깊이 들어 갈수록 공기는 점점 서늘해졌다. 탄광 민청 위원장은 《보십시요, 얼마나 좋습니까, 밖에서는 무덥지만 여기는 이렇게 서늘하지요, 그뿐이 겠어요 겨울에는 눈보라가 일지만 이 굴속은 더운 온돌 방과 같지요》하고 빙그레 웃으며 칸드레 불로 나의 앞길을 비쳤다.

민청 위원장은 마치 자기 집안을 드나드는 듯 동발 사이로 또 첸폼베야 옆으로, 탄 무지 우로 재빠르게 넘어서더니 《자,여기가 막장입니다. 땅우까지는 1,000여메터 됩니다》 하고 칸드레 불을 높이 추켜들었다. 우리의 눈 앞에서는 마치 캄캄한 밤 하늘에서 별이 빛을 뿌리듯이 검은 석탄이 번쩍거리고 있었다.

채탄공들은 인민 경제의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하여 이 무진장한 석탄을 매일 캐내고 있는 것이다.

발파한지 얼마 안되였는지 석탄은 데미로 쌓여 있는데 채탄공들은 연신 삽으로 쇠피대로 된 폼베야 우에 퍼놓는다. 그러면 폼베야는 쉼 없이 석탄을 담고 탄차로 실어 나른다.

저 막장에서 천공하고 었는 동무가 우리 탄광의 자랑인 청년 돌격대장 김 더룡 동무입니다.

돌격 대원들은 언제나 어렵고 힘든일의 앞장에 섭니다. 본래 우리 탄광은 암질이 무르고 물이 많이 나는 것이 큰 애로입니다. 그 중에서도 좌유 평도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대서 한때는 굴진을 중지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것을 청년 돌격 대원들이 이 처럼 훌륭한 갱도로 만들었지요》 무른 암질도 물도 돌격 대원들의 억센 힘을 굴복 시킬 수는 없었던 것이다.

김 더룡 돌격 대원들이 침수된 채 남아 있던 좌유 평도 굴진을 담당해 나선 것은 작년 11월부터 였다.

막상 일에 착수해 보니 쉽지는 않았다. 물이 많이 나고 암질이 무르니만치 자꾸만 무너지군 하는 바람에 종전에는 아무리 많이 나간 다해도 한달에 겨우 60 메터를 넘지 못했다.

탄광 실정에 적응한 새로운 로력 조직과 굴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선진 작업 방법이 요구 되였다.

그리하여 돌격 대원들은 더룡 동무의 창발적 발기에 의하여 굴진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는 예비 탐구에 노력 하였다.

그들은 아직 작업 공정 간의 공 시간이 많다는 것을 발견 했다.특히는 발파 후에 소요되는 배연 시간이 지내 많았다. 이것은 행정에 제기하여 막장에 새로운 선풍기를 설치함으로써 해결되였다. 한편 그들은 교대 본위적 편향과 투쟁하면서 서로 돕는 동지적 우애심을 발휘하였다.

결과 작업에서의 공간이 종전보다 훨신 단축되였으며 동시에 로동 생산 능률도 현저히 제고 되였다.

그러나 굴진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예비는 여기만 있지 않았다. 즉 발파할 때 동발이 너머지는 것을 방지 한다면 더 많은 작업 공간을 제거할 수 있었다.

드디여 더룡 동무는 보를 2중으로 동발에 맞물린 다음 번팀을 단단히 하면된다는 원리를 발견해 냈다.

그가 연구한 지주법을 적용한 후부터는 아무리 강한 폭발 앞에서도 동발은 하나도 쓰러지지 않았다.

이리하여 김 더룡 청년 돌격 대원들은 갱적으로 상반년 기본 굴진 계획을 131%로 초과 실행함에 크게 기여 하였다.

이러한 성과들은 오직 기본 굴진을 생산에 선행시키라는 로동당의 가르침을 철저히 관철시키려는 돌격



대원들의 들끓는 애국심과 고도의 헌신성에서 이루어진 성과인 것이다.

다음날 아침 나는 야근하고 돌아오는 김 덕룡 동무를 그의 사택에서 만났다. 머리에는 번쩍 번쩍 빛나는 안전모를 쓰고 검은 고무 장화에 흰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땅속에서 석탄을 캐고 나왔다고는 생각하지 못하리 만큼 말쑥하였다. 내가 인사를 하자 그는 《별 수고 할게 있습니까, 오늘은 탄부일이 아주 쉬운 일로 되였으니까요, 보십시요, 밤새껏 일해도 옷을 마치지 않으니까요》 하고 웃으면서 말하였다.

덕룡 동무는 열한 살때부터 지하 로동을 시작 했다. 왜놈들은 탄부 한사람 보다도 동발 하나를 더 귀중히 여기면서 갱이 무너져 사람이 죽는 것 쯤은 보통일로 생각했었다.

몸이 탈이 나서 결근하면 순시놈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이자식아 죽어도 갱내에 들어가 탄을 캐다 죽어!》 하고 채찍으로 족여 대군하였다.

그랬는가 하면 온 종일가도 갱도는 공기가 통할 줄 모르고 물과 습기, 그리고 고약한 화약 내에 파묻쳐 하루 12시간씩 일했다.

덕룡 동무는 고된 로동을 강요 당하면서도 임금은 한달에 15전 내지 30전 밖에 되지 않았고 게다가 배급 주는 쌀은 거의다 대두박이 여서 노상 허리 띠를 졸라매고 지내야만 되였었다.

해방 되여서야 비로소 탄부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였다.

당과 정부에서는 탄부들의 생활을 특별히 대우해 주고 모든 작업 조건을 충분히 갖추어 주고 있다.

《왜놈때야 정말 작업복이며 고무 장화가 다 무엇입니까? 죽지 않은 것 다행이지요. 지금은 안전 보호 시설이 빈틈 없이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생활을 보장받고 있지요. 기본 임금의 상금을 제외하고도 입갱 가급금, 자재 보조 가급금, 근속 년한 가급금 등 한달에 현금 수입만 해도 탄부들은 만원은 보통이죠, 이외에 탄부들은 특배미를 비롯한 콩기름, 돼지 고기, 사탕 가루 등 특별 공급 물자도 정상적으로 보장 받고 있습지요》

김 덕룡 동무는 자기의 탄부 생활에 대하여 더 없는 영예감을 간직하고 있었다.

안주 탄광은 1961년도에 가서 60만톤의 석탄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를 위하여 11갱이 새로 조업하고 일산 2천—3천톤의 수송 능력을 가진 벨트 사갱이 건설되여 15리의 갱도 횡단선이 열리므로써 집중 운탄을 가능케 한다.

김 덕룡 청년 돌격 대원들은 이 광활한 1차 5개년 계획 전망의 실행과 함께 보다 자랑스러운 탄부들로 자라 날 것이며 그 영예는 더욱 빛나게 될 것이다.

김 용 철



조 국 에

허 우 연

조국을 잊는 순간이 있으랴만
내 깊이 생각에 묻히노라니
먼저 들리노라, 그대 가슴에
높이 고동치며 울리는 맥박이,

뭇 산을 흔드는 기적 소리,
출렁출렁 만선배들 품에 안고
대지를 끌어 안는 파도 소리에서
내 지금 듣노라
힘있게 움직이는 그대 발'자욱 소리를…

오곡 창파에 벌판은 출렁이고
멀리 공장들은 연기를 뿜으며
쾅쾅 그대의 부흥을 노래 부르니
조국이여, 나는 기쁘노라
젊음에 타는 의지를 지녔음이,

그보다 락동강 도하의 별 없는 밤이,
원쑤의 화구를 가슴으로 막으면서도
오직 오늘 위해 끓던 열정도
더 기운차도록 활활 타 오름이…

내 무슨 일인듯 못하랴
멜빵이 어깨에서 쳐지도록
조국이여, 무거운 짐을 메워달라

그대 가슴엔 궁전들을 세우고
고깃배들이 춤추는 저 바다도
이렇듯 행복에 겨워
그리고 영원히 바라 보기위해,

아니, 그 어떤 폭음도
그대 맑고 푸른 저 하늘,
바다와 건강한 대지의 숨결을
다시는 흐리울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자, 어머니—조국이여,
이 한 젊은 아들도
억만년 부강할 그대와 함께
오직 그대와 함께 숨쉬리라

—1957. 8. 10—

장진 호반의 청춘

구 슬픈 민요

장진땅이라고 하면 우리들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관습은 인간에게 있어서 떼기 어려운 것인바 우리들 가운데는 아직도 누구를 보고 《장진 감자바우 같은 녀석!》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은 좀 우둔하고 몽매하며 촌티를 벗지 못한 사람들에게 퍼부어대는 야유이며 욕인 것이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장진이란데가 얼마나 산'골이고 미개한 땅이였으면 그 말이 지금도 뭇사람들의 머리에 인박여 있으랴 싶은 생각을 하게 된다.

조선 지도를 펼쳐 보면 량강도와 함경남도의 접경 지대에 산호초 같은 두개의 길쭉한 호수가 있다. 북쪽의 것은 부전호요, 남쪽의 것은 장진호이다. 그 길이가 각각 백여리씩이나 되는 이 호수들은 자연호가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이십년 전에 건설된 부전강, 장진강 수력발전소들의 이름과 더불어 새로 지도우에 나타난 인공 호수이다. 즉 부전강, 장진강의 물을 잡아두기 위한 언제가 솟아나면서부터 생긴 것이다.

함흥에서 장진호까지는 170여리밖에 안된다. 그러나 교통 수단이 극히 발달된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 거리를 철'길로 래왕하자면 만 이틀이 걸린다고 생각할 때 누구나가 입을 쩍 벌릴 것이다.

우리는 지금 잉크라에 앉아 황초령을 오르고 있다. 황초령은 해발 1,200여 메터이다. 우리의 몸은 잉크라와 함께 45도 경사각으로 누워있다. 차창을 열고 머리를 쑥 내밀어 보니 과시 지형은 험악하다. 우리의 눈밑으로 까마득한 저 함정에서는 개울물이 사품치면서 흐르고 우리의 맞은 편에서는 실오리 같은 고개'길 (신작로)이 이깔나무 숲을 누비며 숨가쁜 듯 구불구불 내 닫는다.

달은 지고 님소식 없네.
해는 지고 님소식 없네.

앞마을 선비 량반 눈여겨 보지마오.
뒤'마을 선비 량반 눈여겨 보지마오.

이런 장진 민요가 누구의 입에선지 선창되자 잉크라안은 갑자기 구슬픈 노래'가락으로 넘쳐 흘렀다. 노래는 한동안 계속되였다. 장진땅에 초행인 우리의 가슴은 알 수 없는 흥분 속에 정열의 불'길로 타오르기도 하고 달빛 어린 잔잔한 바다'가에서 느끼는 그런 서정에 휩싸여 어쩐지 고독하기도 하였다.

잉크라 안에서는 갑자기 기침 짓는 소리가 들리더니

《여보 젊은이들, 노래랑 거더치우!》

하는 무뚝뚝한 소리가 났다. 불쑥 이런 말로 잉크라 안을 조용하게 만든 그분은 저쪽 맨 구석에 앉은 백발이 성성한 로인이였다. 그의 잔주름 속에 파묻힌 작은 눈에 이슬이 반짝이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로인이 무슨 감회로 하여 눈물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 분은 장진군 해방 농업 협동 조합의 박 재수 로인이다. 우리는 이 분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그리고 사수(泗水)역까지 가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로인은 나면서부터 들어온 자기 고장의 민요에서 왜 그렇게 참을 수 없는 눈물의 심정을 느끼였던가?

장진 고원은 리조 때에 있어서는 류배지요, 왜정때는 화전민들의 가궁스러운 고향이였다. 인가는 가물에 콩나듯 5리만큼씩 한채 두채 늘어져 있었다. 이곳 사람들은 옛적부터 감자만 먹고 살았다. 그들이 이밥을 구경한다는 것은 혼사때나 제사 때 같은 대사를 치루는 경우에만이였다. 이곳 총각들은 대사를 앞두고 감자를 가마니로 지고 황초령을 넘기가 일수였다. 그것을 함흥에 내다 팔아선 례장감이나 입쌀을 마련해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였다. 그러나 일단 황초령을 넘어간 그들 가운데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범이나 산적에게 거더들려 한 많은 황초령의 흙으로 되여 버렸던 것이다.



그래서 처녀들은 총각이 돌아올 날을 한숨과 눈물로 기다리였고, 그러면서도 류배온 사람들 (이들을 토착민들은 선비 량반이라고 불렀다)의 어떤 눈장난에도 속아 넘어가지 않겠다고 속다짐 함으로써 스스로의 애끓는 심정들을 위로하였던 것이다. 박 재수 로인은 우리에게 말하였다. 《나 역시 그런 총각 시절을 보냈소. 그땐 정말 산짐승과 같은 살림을 하였지비, 내 허리가 왜 이렇게 일찍 굽은지 아우, 그놈의 화전살이, 머슴살이에 피골이 상접됐던 때문이요. 허나 지금은 장진땅이 수천년의 잠에서 깨여나 기지개를 쓰고 있다우!》

조합의 선봉대

장진의 8월은 아름답다. 복철이지만 산수가 여름날의 바다'가 처럼 서느러운 바람에 안겨 가을 정서를 자아내게 한다.

우리가 박 재수 로인을 따라 들어간 아담한 거리는 해방구(區)이다. 멀리 북쪽으로 구름 우에 솟은 백암산이 보이고 서쪽으로는 고봉, 동쪽으로는 살 창끝이 봉이 우뚝 솟아 마을을 감싸고 있다. 남쪽엔 장진호의 잔잔한 물'결이 바뜸하게 다가서 거울처럼 빛난다.

이 마을의 농업 협동 조합은 1954년 겨울에 조직되였다. 당시는 총 농가 111호 가운데서 단 17호만이 조합에 들었었다. 로력자는 남자 12명에 녀자 15명이였다. 경지면적은 구 총 경지면적의 20%에 불과했다. 조합 재산으로서는 겨우 축력 8두와 돼지 세마리, 가금 30수, 우차 5대뿐이였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이 조합은 국내 다른 모든 농업 협동 조합이 그렇듯이 자랐으며 질적으로 공고화 되였다.

지금 이 조합엔 구 총 농가 호수의 80% 이상이 망라되고 있으며 경지 면적은 150정보로써 구 총 경지 면적의 70% 이상이 된다. 로력자는 남자 59명에 녀자 65명이며 축력은 29두 돼지 아홉마리 (매 조합원 호당 멕이고 있는 것은 제외)이고 면양은 235마리이다. 조합은 자기의 야장간을 가지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문화 생활을 위하여 리발소와 양복부도 갖지고 있다. 그리고 가둑 누에 종란 10키로 그람을 립지 50정보에서 치고 있다.

조합 관리 위원회의 예견에 의하면 금년의 매 조합원 호당 분배량은 알곡—533키로, 저류—4,680키로, 현금 45,700원이다. 이것은 지난해의 분배량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진 수'자이다. 그리고 평지대의 농업 협동 조합과 비해 보드라도 높은 수'자이다.

례를 들어 황해북도 식현 농업 협동 조합에서의 금년도 조합원 호당 현금 배당은 40,000원인 것이다.

조합 민청 위원장 한 일현 동무는 우리에게 말하였다. 《우리게선 감자가 명산이지요. 어떤 것은 감자 하나에 한키로 오백썩 막 나간답니다. 허나 감자만 먹고 산다고는 생각지 마십시요. 입쌀과 바꿔 먹는데 재령 나무리'벌 사람들 부럽지 않지요.》

그의 말은 나중에 장진 청년들의 보다 훌륭한 생활을 위한 간고한 투쟁의 나날에 미치였다.

민청원들과 청년들이 조합의 경지 면적을 넓히는 일에 착수하였을 때 난관은 첩첩하였다. 신풀이 할 땅이 평지에서 처럼 그렇게 많지 못한데다 또 돌밭이 아니면 나무 그루밭이 십상구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네 고향 땅을 탓하지 않았으며 랑만적인 개간의 노래를 장진 호반에 펼치였다. 그들은 백암강(白岩江)량역의 좁은 땅들과 산골'작을 뒤집어 놓았다. 그러하여 지난 해와 금년에 얻은 땅이 근 10여정보나 된다.

장진 호반의 아들들은 자기 고장의 기후 조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고원 지대인 여기에선 농산물치고 감자, 옥수수, 연맥, 대맥, 원두 이외엔 되는 것이 없었다. 과수 농사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해마다 다소의 신풀이를 한다고는 하지만 고원 지대의 토지엔 제한이 있는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조합원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며 자기네 조합을 평지에서의 훌륭한 농업 협동 조합들 보다 더 낳은 조합으로 만들자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조합 청년들의 토론이 있은 후 서 리훈 동무는 가둑누에를 야산에서 기르는 시험에 착수했다. 고원 지대에서 산에 누에를 치는 것은 여기가 우리 나라에서 처음이였다. 그러니만치 초시기엔 이러저러한 곤난이 많았다. 비나 바람이 모질게 불면 누에가 땅에 떨어져 죽기도 하였다. 더우기 어려운 것은 무리로 모여드는 해조들을 쫓는 일이였다. 서 리훈 동무는 가둑누에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았고, 그를 돕는 동무들은 돌팔매로 해조들을 몰면서 가락나무 사잇'길을 달렸다.

작잠 시험은 성공적이였다. 생산 지표에 의하면 종란 1키로에서 실 180키로를 뽑는게 기준인 데 400키로를 뽑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금년 추잠을 치기 시작하였는 바 누에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며 가을에 가서 150만원의 수입이 있을 것으로 확신된다.

조합에는 근 40여명의 청년들이 망라되여 있는 농촌 청년 학교가 있다. 여기서는 벌써 훌륭한 기술일'군들이 배출되고 있는 바 지난 봄엔 해당 전문 기술 기관의 인정을 받은 정 치호, 백 희용 동무들이 각각 작잠 및 축산 기술원 양성소로 떠났다.

빛나는 전망과 함께

해방 농업 협동 조합의 1차 5개년 계획 전망은 광활하다. 이 기간에 총 경지 면적은 근 50정보나 넓어진다. 알곡, 공예 작물, 소채, 저류 등 작물의 경지 면적이 각각 는다. 총 수확고는 금년에 542, 7톤인 것이 1961년에 가선 938, 9톤으로 된다. 작잠 생산 계획에 있어서도 전망은 큰바 금년에 생산량 3,300키로를 본다면 1961년에 가선 그의 근 2배인 6,000키로를 예견한다. 축산업에 있어서는 1961년에 가서 양모 생산량—1,242키로, 조선소—105두, 면양—425마리, 돼지—30마리 (조합원 호당 기르는 것은 제외)꿀벌—30통을 예견한다.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조합원 주택들을 기본적으로 신축할 것을 예견하며 구락부, 아동 공원, 탁아소도 새로 만들 계획이다.

이런 전망의 실행과 함께 조합원들의 생활은 급속히 향상 될 것인 바 1961년의 조합원 호당 분배량을 보면 알곡—782키로, 저류—8,000키로, 현금—66,600원이다.

해방 농업 협동 조합 민청 위원회는 이런 조합의 전망 계획에 비추어 자기들도 원대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지금부터 민청원들과 청년들 속에서 활발한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짐하고 있다.

조합 민청 위원장 한 일현 동무의 말에 의하면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자기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높여 조합 전망 계획의 실행을 백방으로 보장하는 문제라고 한다.

그러기 위하여 그들은 첫째로 농촌 청년 학교 사업을 강화할 것이다. 아직까지 이 부문 사업에서는 적지 않은 결함들이 있었다. 즉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다 같은 학습조에 망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취미와 희망을 고려함이 없이 같은 연구조에 망라하였기 때문에 일부 동무들의 학습 의욕을 낮추게 만들었었다. 게다가 강사들과의 긴밀한 련계도 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결함을 시급히 시정함으로써 조합 민청 위원회는 자기네 조합 농촌 청년 학교에서 5년 후에 기사 2명, 기수 5명을 양성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그 때 여기를 찾는 사람이면 지금과는 또 다른 보다 위대한 생활의 변혁을 보게 되리다!

송 선 경

쏘련과 평화

강 학 순

쏘련과 평화—이는 갈라서 생각할 수 없는 가장 귀중한 말로서 전 세계 선량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 준다.

전 세계 모든 보통 사람들은 평화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우선 쏘련을 생각한다.

그것은 쏘련이야 말로 참으로 세계 평화의 믿음직한 기수이며 상징인 때문이다.

10월의 불'길 속에서 태여나 40년간 쏘련이 취하였으며 또 취하고 있는 모든 이니샤티브 특히 쏘련 공산당 제 20차 대회가 제시한 로선들은 세계 평화의 위업에 대한 쏘련의 확고부동한 기여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증거이다.

쏘베트 정권 초 시기에 발포된 평화에 관한 법령, 외국 무력 간섭자들의 침공으로부터의 청소한 쏘베트 공화국의 수호, 제 2차 세계 대전을 종결시킴에 있어서의 쏘련의 결정적 역할, 전후 특히 최근 3—4년간에 있어서의 평화를 위한 쏘련의 정력적인 노력들은 세계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처럼 절박한 평화 문제가 쏘련의 훌륭하고 믿음직한 활동과 불가 분리적으로 련결되여 있다는 것을 뵈여 주고 있다.

력사적인 쏘련 공산당 제 20차 대회는 쏘련의 강력한 앙양을 위한 거대한 정치, 경제 및 문화적 과업을 제기하였으며 두 제도의 평화적 공존, 현 시기에 있어서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 각이한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의 각이한 형태들에 관한 명제들을 정식화 하였다.

이 때로부터 1년반이 지나갔다. 이 기간은 짧은 기간이지만 이 동안에 그가 채택한 결정은 쏘련 인민들의 열광적인 지지 속에 쏘련 자체의 발전과 국제 로동 운동 및 세계 평화 옹호 운동의 강화를 위한 사업에서 큰 성과가 이루어 졌다.

쏘련이 취하고 있는 평화적 이니샤티브는 제국주의 지배층이 그처럼 발광적으로 떠들어 대고 있는 바와 같은 선전의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에 대한 전 세계 인류의 절실한 념원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쏘련의 평화 정책은 우선 쏘련의 사회 제도 그 자체의 본질로부터 흘러 나오는 것이다. 쏘련은 인류의 희망인 공산주의를 건설하고 있다. 공산주의의 건설은 오직 정력적인 노력이 필요한바 이는 확고한 평화를 요구하고 있다.

평화에 대한 보장이 없이는 그의 건설에 필요한 방대한 인적 및 물적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인민들의 끊임 없는 생활 향상을 보장할 수도 없는 것이다.

군비 경쟁의 중화로부터 해방됨이 없이는 인민들이 평화적 로동에 종사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쏘련은 20차 당 대회가 제기한 명제들에 립각하면서 국제 긴장 상태의 완화, 군비 경쟁의 종식 및 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나라들 간의 평화적 공존을 주장하고 있다.

쏘련의 이 평화 정책은 우선 군비 축소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에서 여실히 표현되고 있다.

쏘련은 벌써 1946년 유엔 총회 제 1차 회의에서 그것을 제기하였으며 10년 이상이나 그것의 해결을 위하여 계속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쏘련은 상용 군비 축소 및 핵 무기 금지 문제에서 급속한 합의를 이룩하려는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서부 렬강에 커다란 양보를 하면서 군비의 부분적 축소에 관한 조치, 핵 무기를 금지할 데 대한 의무의 부담, 핵 무기 시험의 중지에 관한 합리적인 제안들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오늘 날까지 이렇다 할 긍정적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바 그의 책임은 전적으로 서방측에 있다.

서부 렬강 지배층은 군비 축소에 관한 공담을 늘어 놓으면서 자기들이 제기하였던 방안까지도 쏘련이 접수할 용의만 표시하면 곧 철회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취하는 한편 엉뚱한 부대 조건들을 부치면서 자기들의 일방적이며 흉악한 요구를 제기하는 등 쏘련의 합리적인 제의를 반대하여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 전쟁 상인들의 흉계는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쏘련의 계속되는 노력에 의하여 파탄되여 가고 있다.

쏘련은 미제 무력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을 물심 량면으로 적극 도와 주었으며 우리 나라에서의 정전 달성을 위하여 유엔 및 기타 국제 무대에서 백방의 힘을 다하였다. 그 후에도 쏘련은 조선에서의 평화의 공고화를 위하여 근기 있는 노력을 기울였다. 쏘련은 더욱 로골화되는 미제의 조선 정전 협정 파괴 책동과 관련하여 조선에서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자기의 정책을 다시 한번 명백히 표시하였는 바 쏘련 정부는 최근에 발표한 자기의 성명에서 조선 문제에 대한 유관 국가들의 국제 회의를 소집할 데 대한 공화국 정부의 제의를 지지하였으며 미제의 계통적인 조선 정전 위반 및 파괴 행위를 규탄하였다.

국제 긴장 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쏘련의 수 많은 조치들 중에서 유고슬라비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일련의 대책은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1956년에 있은 쏘련—유고슬라비아 지도자들간의 벨그라드 및 모쓰크바 선언, 최근에 있은 루마니아 회담 결과에 대한 공동 성명은 이를 확인하여 준다. 이 조치는 레닌적 제 원칙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서 쏘련과 사회주의 진영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발칸의 평화를 공고히 하는 위업에 중요한 기여로 된다.

쏘련은 구라파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오지리와 강화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독일 련방 공화국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전반적 국제 긴장 상태를 현저히 완화시켰다. 쏘련은 독일 문제 해결에서 두 독일 국가 즉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독일 련방 공화국이 존재하는 현실적 조건으로부터 출발하여 량 독일 국가들의 실무적 접촉을 발전시킬데 대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제의를 지지하고 있다. 또한 독일 인민 자신에 의한 통일된 독일 국가 창건을

지지하며 이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
다.

쏘련은 극동에서의 평화와 긴장
상태 완화에도 심중한 관심을 가지
고 있는바 일본과의 관계의 정상화
와 실무적 접촉을 위한 일련의 조치
들은 바로 이 념원으로부터 출발하
고 있다.

최근 년간에 실시되고 있는 더욱
적극적이며 정력적인 쏘련의 평화
정책에 의하여《힘의 립장에 선》제국
주의자들의 정책은 파탄되여 가고
있는바 현 조건하에서 전쟁을 방지
하며 평화를 보장할은 하나의 념원
으로부터 현실적 가능성으로 전환
되고 있다.

쏘련 공산당과 외국의 진보적 당
들간의 접촉과 쏘련의 지도적 활동
가들과 다른 나라 지도적 활동가들
간의 개별적 접촉은 평화의 보장과
국제 관계 개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 나라 지도자들 간의
호상 접촉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해방된 아세아의 일련의 나라들 : 례
컨대 인도, 인도네시아, 씨리야, 애급,
비르마, 아프가니스탄 및 기타 나라
지도자들과 쏘련 지도자들과의 접촉
은 이 나라들의 호상 리해를 달성할
수 있게 하였으며 우의와 신임을 강
화하였고 린접 국가들 : 례컨대 분
란, 희랍, 이란, 토이기 등 나라 지
도자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린방으로
부터의 위협을 감소시켰으며 구라파
일련의 나라들 : 례컨대 미국까지도
포함하여 영국, 불란서, 독일 련방
공화국, 오지리 지도자들과의 접촉
은 의심할바 없이 국제 관계를 개선
하는데 긍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
다. 쏘련의 이니샤티브에 의하여
1954년 7월 제네바에서 진행된 4 렬
강 수뇌자 회의는 평화를 념원하는
세계 인민들의 요구에 기초하여 긴장
된 국제 분위기를 완화시키며 제 국
가 간의 호상 신뢰와 협조를 두텁게
함에 있어서 적지않게 기여하였다.

세계 평화 위업에 대한 쏘련의 빛
나는 공헌은 결코 이에 그치지 않
는다.

쏘련은 장기간 제국주의 전쟁 상
인들의 공고한 후방이라고 불리워 오
던 식민지 및 반 식민지들에서 일어
나고 있는 강력한 민족 해방 투쟁을
완강하게 지지하고 있으며 그의 벗
이 되기를 서슴치 않고 있다. 그것은
식민주의의 온갖 형태들은 세계의 평
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화근의 하나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음으로 양으로
영, 불 식민주의자들을 지지 고무하
던 시기에 애급 인민의 편에 서서
이 나라에 대한 영, 불, 이스라엘의
무력 침공을 저지시키기에 충분한
경고를 한 쏘련의 조치는 민족 해방
투쟁과 평화를 위한 투쟁 력사의 빛
나는 한 페지에 찬연히 기록될 것이
다.

제국주의 략탈배들이 애급을 굴복
시킨 다음 독립한 아랍 제국가를,
나가서는 아세아 여러 나라들을 차
례 차례로 정복 하려던 제국주의 침
략 계층의 무모한 시도는 평화를 옹
호하며 전쟁을 반대하는 쏘련의 확
고한 지지에 의하여 파탄 되였다.
웽그리야에서 반 혁명을 조작하고
쏘련과 사회주의 진영 제국가들을
침략하며 구라파 중심부에 전쟁의
온상을 만들려던 전쟁 상인들의 책
동은 쏘련의 직접적인 원조에 의한
웽그리야 인민의 영웅적 투쟁으로써
분쇄되였다.

자기의 민족적 독립을 쟁취하며
이를 확고히 하려는 모든 인민들의
투쟁 즉 독립을 위한 알제리아 인민

의 투쟁, 고아, 카슈미르 문제의 정
당한 해결을 위한 인도 인민들의 투
쟁, 서부 이리안 회복을 위한 인도
네시아 인민들의 투쟁, 자결을 위한
싸이프러스 인민의 투쟁, 미군의 철
수와 일본 본토에로의 복귀를 위한
오끼나와 인민들의 투쟁 등 세계 도
처에서의 해방 투쟁은 빠짐 없이 위
대한 쏘련 인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와 성원을 받았으며 또 받고 있다.
애급 대통령 나쎄르는 쏘련은 애급
에 밀가루가 곤난하던 시기에 밀
가루를 제공하였으며 애급 면화의
판매가 곤난하던 시기에 애급의 면
화를 사주었다고 지적하였다.

후진 국가들에 대한 쏘련의 지지
와 성원은 벌써 말로만이 아니라 실
제적 활동 행정에서 구체적으로 실
천되고 있다. 애급, 씨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비르마 및 기타 일련의
아세아 및 아프리카 나라들에 주고
있는 쏘련의 사심 없는 원조는 이 나
라들의 평화적 건설 사업과 민족 공
업 발전에 막대한 기여로 되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씨리아 수상 아
살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씨리아
인민은 쏘련에 감사를 드리고 있
다》이는 결코 애급 인민이나 씨리아
인민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쏘
련에 대한 감사라는 말은 전체 사회
주의 진영 나라들에 있어서는 벌써
생활적 언어로 되고 있으며 평화와
민족적 독립을 원하는 나라들에 있어
서도 가장 친근한 말로 되고 있다.

쏘련과의 친선—이것은 평화와 인
민들의 행복한 미래에 대한 보증이다.

부다베스트의 네거리에서 백색 테
로에 쓰러지면서 나어린 소녀가 웨
치던 쟁쟁한 목소리《쏘련을 눈'동자
와 같이 사랑하라…》, 시나이 반도
의 가렬한 불'길 속에서 쏘련을 친선
과 동경으로 바라 보던 늙은 목부의
빛나는 눈—이는 온 세계 평범한 사
람들의 소박한 감정이다.

이것은 평화의 성새, 평화의 기수,
쏘련과의 친선은 평화의 유지 공고화
를 위한 담보이며, 모든 인민들과
쏘련 인민과의 친선은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의 거대한 기여로 된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온 세계에서 쏘련
과의 친선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며
쏘련을 향하여 배우자는 목소리가 오
늘처럼 높은 때는 없었다.

생활의 교훈은 쏘련이 취한 특히
쏘련 공산당 20차 대회에서 확인되
였으며 최근 3—4년간 더욱 정력적으
로 실시되고 있는 쏘련의 평화 정책
이 정확하였다는 것을 확증하여 주
었다.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6월 전원
회의에서 폭로 된바와 같이 정치적
소경들만이 그것을 반대하여 나섰다.

즉 말렌꼬브, 가까노비치, 몰로또
브 등 반당적 종파 분자들은 유고슬
라비아와의 관계 개선, 오지리와의
강화 조약의 체결, 일본과의 관계의
정상화 및 기타의 일련의 쏘련 공산
당의 평화 애호적 조치를 반대하였
던 것이다.

이는 오직 평화의 원쑤들에게만
리익으로 되는바 쏘련에서의 반당
종파 분자들의 폭로는 쏘련 공산당
의 불패의 통일을 강화하였으며 쏘
련의 평화 정책을 계속 완강히 실시
할 수 있는, 보다 확고한 담보로 되
었다.

쏘련의 평화 정책에 대한 국내외
로부터의 어떠한 비렬한 공격도 이
위대한 정책으로부터 쏘련을 돌려
세울 수는 없으며 그처럼 제고된 쏘
련의 위신을 훼손시킬 수도 없다.

우리의 선전원

민청 초급 학습 반 학습 제목

《사랑하는 우리 조국》의 학습을 어떻게 진행 할 것인가

1. 학습의 기본 내용과 학습 시간

학습 제목 《사랑하는 우리 조국》에서 학습 할 기본 내용은 첫째로 우리 나라의 아름답고 다양한 자연 즉 자연 지리와 경제 지리의 기초이며 둘째로는 우리 인민이 창조한 찬란한 과학 문화 유산과 국내외의 원쑤들을 반대하여 싸운 영광스러운 애국 전통, 세째로는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인민 민주주의적 국가 및 사회 제도이다.

일찌기 김 일성 동지는 《애국심은 자기 조국의 과거를 잘 알며 자기 민족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전통과 문화와 풍습을 잘 아는 데서만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였다. 이 학습을 통하여 매개 민청원들은 조국의 지리와 문화 및 애국 전통과 우리 조국의 인민 민주주의적 국가 사회 제도를 깊이 인식함으로써 자기의 애국심을 더욱 배양하기에 힘써야 한다. 동시에 민청원들은 이 학습을 계기로 조국의 과거와 현재 력사와 지리 등에 대한 연구심을 일층 높이며 앞으로 조국에 대한 더욱 진지한 학습을 진행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사랑하는 우리 조국》의 학습 시간은 총 18시간이다. 그럼으로 제1장부터 제3장에 이르기까지 매장에 각각 6시간씩 배정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2. 학습에서 류의할 점

첫째로 이 학습을 진행함에 있어서 강사나 민청원들이 류의하여야 할 점은 많은 자료를 외우는데 치중할 것이 아니라 매 자료의 학습을 우리의 혁명 과업과 사회주의 건설 및 청년들의 생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 할 것이다.

례를 들면 량강도 갑산군의 어느 직장 강습에서는 강습 지도자가 《우리 나라의 기후》를 강의함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기후는 대륙성이다》 라고 한마디로 강의하였으며 우리 나라의 바다를 강의함에 있어서는 《동해는 넓고 깊으며 황해는 좁고 얕다》 라고 강의하였다.

만약 학습반 강사가 이렇게 강의 한다면 청강자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는가? 우리 나라의 기후, 바다를 학습 한다면 그의 특징들과 함께 그것이 우리 나라 발전과 인민 생활에 어떤 의의를 가지는 가를 반드시 학습하여야만 할 것이다.

둘째로 류의할 점은 이 학습 진행에 있어서 반드시 자기 지방의 구체적 자료들을 보충하여 학습 할 문제이다. 학습 참고 자료는 전국적 견지에서 자료들이 제공되고 있으니 만치 각 지방에서는 자기 향토의 자료를 보충하여 학습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7, 8월에 진행된 강원도 고산군을 비롯한 적지 않은 지방 민청 단체들에게서의 강사 강습회들에서는 이 방면이 극히 약하게 취급 되였음으로 앞으로의 학습 진행에서 꼭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백두산의 높이와 압록강의 길이 그리고 우리 나라의 지하 자원 매장지들을 잘 안다 하더라도 자기 지방에 있는 산과 강에 대하여 또는 자기 지방에 있는 자연 부원을 모른다면 이 학습은 잘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3. 학습에서 리용할 참고 서적과 직관물

참고 서적 기본 참고 서적은 민주 청년사가 발행한 참고 자료(1)을 리용할 것이며 그 외에 다음과 같은 서적들을 참고 할 것이다.

조선 로동당 제 3차 대회에서의 당 중앙 위원회 사업 총결 보고 및 결정서

김 일성 동지의 연설 《현계단에 있어서 지방 정권 기관들의 임무와 역할》

(김 일성 선집 제 4권)

《김 일성 동지의 연설》 분덕 선거구 선거자들 앞에서 한 연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헌법

교육 도서 출판사 발행 초급 중 학교 《조선 지리》 《조선 력사》 교과서

민주 청년사 1957년 발행 《조국에 대한 지식》

직관물 참고 자료에 제시된 자료들을 리용할 것이며 특히 조선 지도를 본 학습 전 기간을 통하여 사용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학습 기간 중에 매개 민청원들이 조선 지도를 보는 방법에 익숙하며 조선 략도를 그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에 제시된 직관 자료외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작 리용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자기의 도와 자기 시 군의 지도.

조선 자연 부원 분포도 공업 배치도

조선 명승 고적도

조선 력사 년대표

문화 유물의 사진 및 도해를 실은 각종 괘도와 사진첩

을지 문덕, 리 순신, 강 감찬 장군, 박 지원, 정 다산 등의 초상화

4. 매 제목의 중심 내용

(1)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자연 부원

우리 나라의 위치, 령토, 주민,

세계 지도상에서의 우리 나라는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나라들과 린접하고 있는가, 우리 나라의 위치는 우리 나라 발전에 어떤 의의를 가지는가. (조선 지도상에서의 자기 도와 시, 군의 위치도 동시에 학습 한다. 우리 나라 령토의 너비, 조선은 예로부터 하나이며 조선 인민은 단일 민족인 조선 민족이다.

2. 우리 나라의 아름답고 다양한 자연

ㄱ. 산지—동북 산지대와 서북 산지대 및 남부 산지에는 어떤 산맥과 주요 산들이 있으며 각 산지대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 나라의 주요한

분지들

ㄴ하천, 평야, 호수—서해안, 동해안, 남해안의 주요한 하천들과 평야들 및 그의 인민 경제적 의의, 우리 나라의 주요 호수들(자연 호와 인공호)

ㄷ. 바다—동해, 황해, 남해는 각각 어떠한 특징을 가졌는가를 리해하며 그것이 우리 나라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학습한다. (너비, 깊이, 해류, 조석 간만, 해안선 등을 중심으로)

ㅁ. 기후와 동식물—우리 나라 기후의 특징은 무엇이며 그것은 우리 나라의 발전 특히 농촌 경리에 어떤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있는가. 동식물의 종류

3. 우리 나라의 풍부한 자연 부원

ㄱ. 지하 자원—우리 나라 지하 자원의 다양성과 풍부성 및 그의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있어서의 의의는 무엇인가. 연료 광물(석탄), 흑색 금속 광물(철과 합금용 광물), 유색 금속 광물(금, 은,동, 연,아연,마그네슘 등), 비금속 광물(흑연, 석면 운모, 석회석 등), 희유 원소 광물별로 그의 용도와 주요 매장지를 학습하며 자기 도와 시, 군의 지하 자원에 대하여 학습한다.

ㄴ. 수산 자원—수산 자원은 어떤 인민 경제적 의의를 가지며 우리 나라에 수산 자원이 얼마나 풍부하며 그렇게 풍부한 조건은 무엇인가. 우리 나라의 중요한 수산 자원은 어떤 것들인가.

ㄷ. 산림 자원과 수력 자원—우리 나라 삼림 자원의 정형과 그 조성을 위한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대책, 우리 나라에 수력 자원이 풍부한 조건과 그의 분포 및 인민 경제적 의의는 무엇인가

ㄹ. 우리 나라의 풍부한 자연 부원이 8•15 해방전에는 외래 침략자들의 략탈과 착취의 대상으로 되였으며 오직 인민 민주주의 제도하에서만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계획적이며 합리적으로 리용되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지하 자원에 대한 수요의 증대 및 지하 자원 개발과 청년들의 영예로운 임무.

4. 우리 나라의 공업, 농업, 운수

ㄱ. 8•15 해방전의 우리 나라 경제의 락후성과 식민지적 편파성. 해방후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인민 경제의 발전

ㄴ. 우리 나라의 공업—각 공업부문 별로 그의 인민 경제적 의의와 우리 나라에서 해당 공업이 발전할 수 있는 조건 및 그의 지리적 배치를 학습한다. 동시에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있어서 해당 공업의 발전 전망을 조선 로동당 제 3차 대회의 문헌과 문덕 선거구 선거자들 앞에서 한 김 일성 동지의 연설에 근거하여 학습 할 것이다.

(석탄 공업, 전력 공업, 흑색 금속 공업, 유색 금속 공업—남포 제련소 아연 제련 직장 조업식에서 한 김 일성 동지의 격려사를 연구할 것—기계 제작 공업, 화학 공업, 건재 공업. 림업 및 목재 가공업, 경공업—섬유, 고무, 식료품, 일용품—)

ㄷ. 우리 나라의 수산업—우리 나라 수산업의 중심지들과 수산업 발전을 위한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4월 전원회의의 결정 내용을 학습한다.

ㄹ. 우리 나라의 농업—곡물 생산, 공예 작물, 축산업, 과수, 양잠별로 그의 중요한 생산지대와 그 발전을 위한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대책을 학습한다.

특히 10만 정보의 과수 면적을 조성할 데 대한 당 중앙 위원회의 호소 실천을 위한 민청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결정을 구체적으로 학습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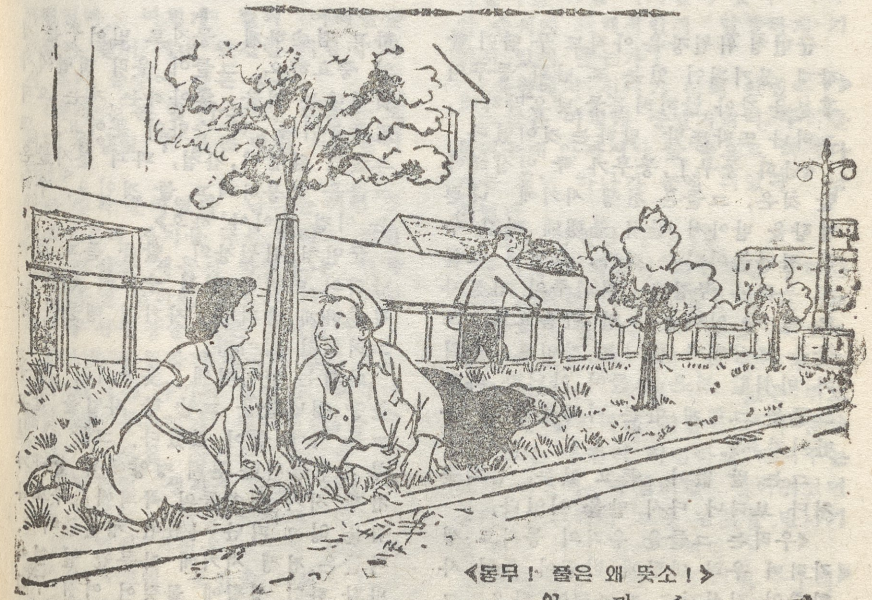
ㅁ. 우리 나라의 운수—전후의 우리 나라 운수의 급속한 복구 발전, 우리 나라의 중요한 철도 간선을 지도상에서 학습한다.

ㅂ. 공화국 남반부의 경제 형편—남반부 경제에 대한 미제의 예속화 정책과 략탈 정책 및 그의 결과—다음의 자료를 가지고 직관물을 만들어 리용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일제말기	1955년
공업 총생산액—	100	50%
	1936년	1956년
방직 공업—	100%	33.33%
(면포생산)	일제말기	1956년
미곡 생산—	100%	60%
	1953 회계년도	1957 회계년도
군사비—	100%	298%
인민들의—	1953년	1957년
세금 부담액	100%	895%
물가 등귀 (소매)	1947년	1955년
	100%	1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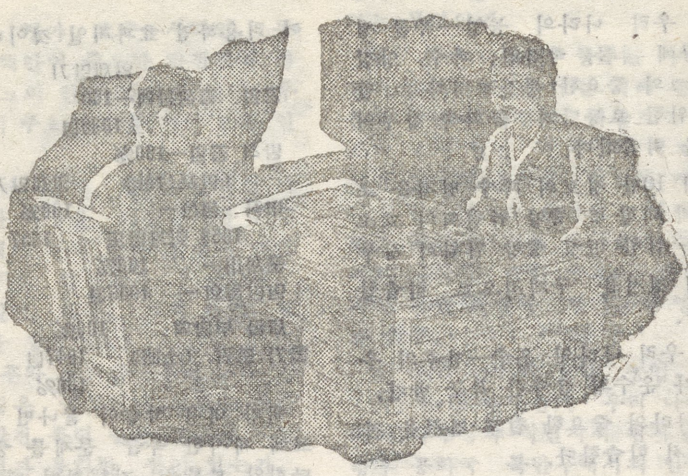
제강 내용 학습이 끝나면 참고 자료에 제시한 복습 문제를 중심으로 담화와 토론을 진행하여 배운 지식을 더욱 공고히 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동무! 풀은 왜 뜻소!》

원 광 수 그림



따뜻한 사랑의 열매

군민청 위원장은 아직도 두 뺨이 빨갛게 상기되여 있는 조 남희 동무의 홍분을 갈아 앉히려는듯 낮으막하게, 그러나 또박또박 말하는 것이였다.

《남희 동무! 동무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그들은 전쟁 시기에 나쁜 영향을 받아서 일시 불행에 빠진 우리 청년들이라는 것과, 그러니 그들도 우리와 꼭같은 사회주의 건설자로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포섭해야 한다는 것이요, 우리가 미워할 것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그렇게 만든 미국놈과 리 승만이지요》.

그는 말 없이 듣고 있는 남희를 쳐다 보더니 다시 말을 이였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동지로 생각하며 우리 대렬에 이끌어 들여 사회주의 건설자로 개조해야 하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허심하고 겸손하게 동지로 믿어주는 것이 중요하오. 그들이 우리 대렬에서 벗어나는 것을 좋아하는 자는 오직 미국놈이나 리 승만이 뿐이요. 또 그들의 앞잡이, 간첩, 파괴 분자들은 그들을 리용하려고 들 것이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하오》.

군민청 위원장의 말을 듣고 있는 남희의 머리는 점점 수그러 들었다. 경솔하게 생각한 자기의 행동이 부끄러웠던 것이다.

남희는 얼마전에 옷고개의 일부 불량 청년들을 교양 할 사업을 맡고 그들 속에 들어 갔었다. 그들 중 일부 청년들이란 본래 평양에서 살다가 전쟁 시기 원쑤들의 폭격에 부모와 집을 잃고 피난 나왔던 청년들이다. 이들은 전쟁 시기에 아무할 일 없이 방황 하던 생활에 물젖어 여직 무직자로 떠돌아 다니면서 나중에는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행동들도 서슴치 않았다.

《이들 속에서 우리 민청 단체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몸 가까히 느끼게 하리라. 그리하여 이들도 다른 청년들과 같이 떳떳한 사회주의 건설자로 되게 하리라!》

이것은 그가 얼마전에 군 민청에서 다진 결심이였다.

그러나 그가 찾아간 옷고개 청년들과의 사업은 마음과 같이 되지 않았다. 물론 처녀로서 불량 청년들과 사업 한다는 것이 힘들리라는 것을 예상 못한 것은 아니였다. 그래서 제딴엔 처음부터 그들을 성의껏 대하느라고 했으나 그들은 노상 야유와 희롱으로 맞이했고 어떤 때는 심한 모욕까지 가하면서 상대할 념도 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서도 남희는 자신을 극복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었다. 이렇게 벌써 여러날을 그들과 같이 지내 왔건만 지금에 와서 그의 골수에 남는 것은

《쓸데 없는 헛 수고다. 그들은 도저히 교양할 수 없는 버린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 뿐이였다. 남희는 이런 생각으로부터 자기를 극복 하려고 몇번이고 결심을 새롭게 하였으나 결국 이 그릇된 생각에 포로가 되여 다시 군민청 위원장을 찾은 것이였다.

군민청 위원장과 헤여져 돌아 오는 길에 남희는 자기의 견해가 너무나 짧았음을 부끄럽게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자기는 그들을 버린 사람처럼 생각지 않았던가? 이렇게 자기는 그들을 동지로 믿어주지 않으면서 자신은 그들의 그런 비동지적 태도에 불만을 느끼지 않았던가? 이렇게 생각되자 남희는 전에 없이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러자 남희의 가슴 속에는 (그렇다 위선 허심하고 허물 없는 그들의 참된 동지가 되자!) 하는 생각이 미여질듯이 가득차 왔다.

그 후부터 그는 새로운 벗을 사귀는 그런 행복감으로 그들을 마지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남희를 피하기가 일수고 좀체로 어울릴 념을 하지 않았다. 그러던 그 며칠 뒤, 남희의 극진한 사랑과 성의가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사전이 생겼다.

하루는 경하네가 옷고개 밑을 흐르는 개울에서 모욕을 하고 있었다. 모욕을 마치고 옷을 입으려고 나온 경하네는 순간 휘둥그래진 눈으로 서로 쳐다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이상하게도 찢어지고 해져서 너덜너덜 하던 자기들의 옷이 누구의 솜씨에 의해서인지 알뜰하게 기워져 있지 않는가!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 왔댔나?》

그들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두리를 살피는데 아까시야 숲 속으로 빠져나가는 처녀 하나가 눈에 띄였다. 남희였다.

《민청 위원장 동무!》

불시에 눈시울이 화끈해진 경하는 그만 소리를 내여 부를번 했다. 그는 남희를 알게된 후 그날 비로소 마음 속으로나마 이렇게 존경을 표했던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은 뒤로는 그는 남희에게 허물이 가지 않았다. 그는 무한히 허심하게 대해주는 그가 어쩐지 누님처럼 믿어워졌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남희를 만나기만 하면 거의 말버릇처럼

《선녀 동무! 옷이나 기워 주구래》

하는 악의 없는 롱말로 대하였고

그들 서로는 웃음 속에 허물 없이 어울러였다.

이러는 사이에 남희는 흔히 롱말 속에 불량 행위를 그만두고 생산 직장에 들어 가자는 권고를 그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되풀이 했다. 그러나 경하는 어쩐지 이런 이야기만은 귀에 남지 않았다.

그해 가을이였다. 그날 밤도 경하는 뻐스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늠하기 어려운 팔동교 뻐스 정류장을 방황하고 있었다. 그 몇분 뒤였다.

《이놈을 잡아주! 이놈이 내 주머니를 짤랐수!》

하는 웬 로친의 황급한 목소리가 뻐스 정류장을 진동했다. 경하가 같은 련중인 대식이라는 청년이 짜른 주머니를 넘겨 받다가 로친에게 잡힌 것이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우―하고 모여 들었다. 그 때였다.

《할머니!》

하고 사람들 속을 헤치고 나서며

《이 동무를 저에게 마껴줘요. 제가 일을 처리하겠어요 네?》

하고 간청하는 처녀가 있었다. 남희였다. 순간 할머니는 못 믿어웠던지 남희를 아래 우로 훑어보더니

《임자는 누구요?》

하는 것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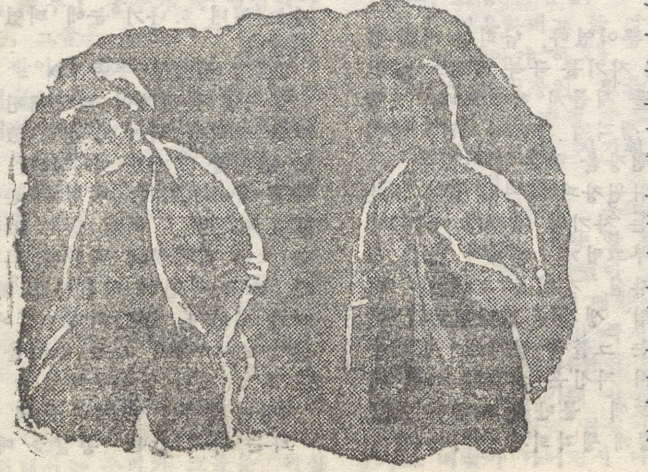
《안심하세요! 저는 이 동무가 사는 동네 민청 위원장이예요》

그러자 비로소 로친은 안도의 숨을 후―쉬였다. 알고 보니 로친은 원쑤들의 폭격에 한쪽 다리를 잃은 후 아직 완쾌되지 못한 아들을 구안하기 위하여 그가 좋아하는 과실을 사려가던 참이라는 것이였다.

《경하 동무도 아마 돌아가신 아버지가 앓으실 때 이런 길을 떠난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 때 만약 동무가 이런 환경에서 돈을 잃는다면 속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동무의 아버지는 돈을 가져간 사람을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그날 밤 남희의 이런 충고는 경하의 가슴을 어느 때 보다도 뭉클하게 했다. 특히 그의 눈시울을 뜨겁게 한 것은

《지금엔 경하 동무도 그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할줄 믿어요. 바로 동무가 잘못을 뉘우치고 옳은 길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 오늘 밤도 나는 우정 따라 나왔던 거예요》 하는 남희의 실로였다. 그 외에도 경하는 실로 자기를 우



둔한 인간이라고 생각할 만치 자기를 위해 각방으로 애쓴 민청 단체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알게 되였다. 그리하여 그는 그날 밤 드디여 눈물을 먹음었고 얼마 후에는 원쑤들의 폭격으로 돌아가신 아버지가 림종시에 나라의 훌륭한 일'군이 되라고 유언하시던 사실이며 앓고 계시는 어머니가 자기의 불량 행위를 눈치채고 극력 만류하는 이야기들을 남희에게 고백했다. 그러면서 그는 로동 직장에 들어가도록 도와 달라고 남희에게 부탁하였던 것이다.

× ×

이듬해 봄, 이렇게 이들을 포섭한 민청 단체는 드디여 이들의 목소리를 상부에 제기하여 이들을 성원으로 하는 식료품 생산 협동 조합을 조직하는데 이르렀다.

그 후 남희 동무는 이들과 함께 동 협동 조합에 들어 갔으며 지금도 그곳의 민청 위원장으로 그들의 친근한 벗으로 공작하고 있다.

지금 이들은 사회주의 근로자로서 훌륭히 일하고 있다. 상반년도만 해도 국가에 수만원의 리익을 주었으며 자기의 생산 과제를 106%로 초과 실행하였던 것이다.

이런 지난날의 회상담에 잠기였던 조 남희 동무는 다음과 같은 말로서 자기의 이야기를 맺는 것이였다.

《인간에 대한 존경과 사랑, 바로 여기로부터 우리의 모든 단결이 이루어 진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조 경 직

기자의 수첩에서

사랑을 귀중히 여기라!

우리 시대 젊은이들에게 있어 아주 드믈게 있는 일이지만 그렇다해서 내쳐 버릴 수는 없다.

왜냐 하면 그것은 우리 청춘의 영예와 사랑의 진리를 훼손 외곡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선옥 동무는 평남도 강서군 송호리 조개섬 민청 분초급 단체 내 민청원이다. 그는 초급 중학교를 졸업한 후 자기 마을의 농업 협동 조합에 들어 성실하게 일해왔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그의 생활은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전야엔 나가지 않고 무슨 일을 하는지 집안에 들어 박혀 있는 날이 자주 생기였다. 그리고 전야에 나간다 하드라도 몸을 아껴 쉬운 일에만 정신이 간다.

한 선옥 동무가 갑자기 이렇게 변한데는 리유가 있었다. 평양 건설 대학 모 학생과 약혼한 다음부터 그는 딴 사람이 되어 갔던 것이다.

(나는 미래의 건설 기사의 안해이다. 이제 몇해 후이면 영영 농촌에서 떠나 화려한 도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자면 우선 손부터 농민의 냄새를 벗어야지 않겠는가! 기사의 안해의 손이 북두갈 구리처럼 생겨서야…)

한 선옥 동무의 생각이 얼마나 들뜬 생각인가? 언제 어데서 일하던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지혜와 로력을 다하는 것이 우리 시대 청년들의 리상이다.

한 선옥 동무는 자기의 빛나는 앞날을 위하여 들뜬 생각들을 버리고 참된 사랑의 훌륭한 결실을 위하여 조합 생활에 종전처럼 열성을 내야 할 것이다.

청년과 말

한 정 직

말은 마음의 거울

《김 동무! 우리 조 동무를 도와주자구》

《옳소, 그래야만 우리 브리가다가 제때에 생산 과제를 실행할 수 있어》

이것은 우리의 로동 청년들이 일상적으로 주고 받는 말이다.

《할아버지! 먼저 타십시요. 여기 앉으십시요》

이렇게 오늘 우리 시대 청년들의 언어 생활과 행동은 매우 아름답다.

언어 생활이 아름다운 청년을 우리는 문화적인 청년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말은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한바를 표현하는 수단인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말은 곧 사람들의 사상의 반영이며 마음의 거울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청년들 가운데는 저속하고 야비한 말을 함부로 쓰고 있는 동무들이 있다.

《개똥 같은 자식 이리 나왓!》《눈깔이 없어》

《뭐야! 이새끼》《밥통같은 자식》《영감 뒈 먹지 않았소》

이런 말들은 우리의 생활을 불쾌하게 한다. 이런 청년들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하게 차리고 다녀도 쳐다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짧은 몇마디의 말에서 그의 품성을 집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야비한 말을 쓰는 청년들을 가리켜 교양없는 비문화적인 청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연하지 않다. 그럼으로 우리 청년들은 일상적 언어에서 조심하며 조잡하고 누추한 말을 쓰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동지 호상간 또는 윗 사람과의 관계에서 굳은 신뢰와 존경으로 일관된 그런 말을 쓰기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말은 단결의 무기

오늘 사회주의 건설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말은 상대방에 대한 고무와 추동, 격려로 충만되고 있다. 그들은 자기 경험을 광범한 군중에게 소개하며 뒤떨어진 사람에게 가르치며 앞선 사람에게 배우기를 희망하는 그런 아름다운 담화들로 자기들의 증산에 기여한다.

작업 과정에서 쓰는 언어가 항상 아름다운 곳에서는 일하기가 무척 즐거우며 따라서 생산 능률도 높아진다.

반면에 란잡한 말로서 큰 소리로 호령하며 서로 자기만 잘 났다고 뽐내며 남에게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그런 청년들의 작업은 명랑하지 못하며 생산 실적도 필연적으로 뒤떨어지는 것이다. 브리가다의 단결을 위하여 동지의 결함을 시정시켜주는 비판을 전개함에서도 그러하다.

비판은 동무의 결함을 고쳐주며 우리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할 때에는 말을 정확하게 써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청년들은 비판에 대한 몰리해로부터 《동무는 좀 빌레요》 또는《해독 분자》등 동지들속에서 쓸 수 없는 말을 망탕 씀으로써 오히려 우리의 단결에 손해를 주고 있다.

—김 동무! 동무 때문에 회의가 얼마나 지연되였는지 아십니까? 회의에 늦어 오면 되나요? 하면 상대방이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순순히 접수할 것을

—김 동무! 동무 어떻게 마음을 먹고 늦었소? 회의를 파괴하려는 셈인가!

하고 얼굴을 붉혀 가지고 편잔준다면 상대방에게는 달갑게 접수되지 않을 것이며 증산을 위하여 가지는 회의라도 성과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는 친선과 존경과 고상한 도덕으로 일관된 것이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청년들은 로동과 학습을 통하여 항상 자기들의 사상적 및 도덕 교양 수준을 높이며 정직하고 겸손한 동지들과 윗 사람들을 따라 배워야 할 것이다.

우리 말을 사랑하자!

예로부터 조선 말은 그 소리와 뜻에 있어서 아름답고 예리하고 다채롭기 이름이 높다. 우리 말은 다른 어떤 나라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의욕에 마추어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

레를 들면 붉은 빛 한가지를 표현하는 말에 있어서도 붉다, 빨갛다, 뻘겋다, 새빨갛다, 불그스럼, 발그스럼, 불그레, 발그레,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손으로 만져보고 표현하는 말에 있어서도, 매끈매끈, 거칠거칠, 미끈미끈, 울퉁불퉁, 등 얼마든지 자세하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말이 섬세한 표현력을 가졌으며 무척 다채롭고 아름답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름다운 말을 두고 아직도 일부 청년들은 우리 말에 일본 말을 섞어씀으로써 우리 말을 비속화하고 있는 것을 가끔 보게된다.

—동무! 저고리를 벗읍시다.

하면 될 것을 구지 일제가 남겨놓고 간 말인

—동무! 우와기를 벗읍시다!

로서 우리 말까지 뒤죽박죽이 되게 할 필요는 무엇인가! 또 생산직장의 일부 청년들은

—완성합시다! 하는 좋은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시아게 합시다.

라고 함으로써 우리 말을 비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메가네》, 《노리까에》, 《벤또》, 《앗싸리》 등여러가지 있다. 조선 말에 없다면 몰라도 조선 말에 엄연히 그런 어휘가 있는 것을 그만 두고 조선 말 속에 일본 말을 섞는 것은 언어의 문화성을 망각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은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게 경계하여 야한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풍부하고 예리한 표현을 가진 우리말을학습하여보다 많은 아름다운 어휘를소유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위하여 연극과 영화의 정상적 감상은 사상 의식의 수양과 함께 언어 학습에도 좋은 교실로 될 것이니 이런 기회를 통하여 배우며 또 서적을 통하여 자기의 어휘를 풍부하게 해야할 것이다. 이와 함께 언어의 문화성을 위하여 중요한 것은 전 인민적 표준어의 사용이다. 우리들이 표준어로 우리의 언어를 통일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사상 의지 및 행동의 통일에 기여되며 우리들의 단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말을 정확하고, 아름답게 쓰기 위하여서는 자체 정치 사상 의식 수준과 문화 수준을 항상 높이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력사이야기

행주 산성



김 세 의

행주 산성은 조국의 아름다운 자연 경치 보다도 임진 왜란 때 일본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조상들이 남긴 슬기로운 이야기들로서 우리들에게 더욱 알려져 있다. 행주 산성의 슬기로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들은 우리 인민에 대한 자랑과 함께 우리 조상들의 애국적 기상을 이여 받을 결의에 충만되고 있다.

행주 산성은 오늘의 경기도 고양군 지도면과 금포군 서면 사이에 우뚝 솟은 덕양산에 있는 성이다. 이 산성의 형세를 말하면 뒤'면인 남쪽은 한강을 끼고도는 곳에 돌을 깎아 세운듯한 벼랑을 이루고 있으며 나머지 3면은 나무가 우거져 있어 전 산을 가리우고 있다. 이 산성에 올라가 4방을 바라다 보면 남동쪽 약 30리의 지점에는 서울 통산이 일목 료연하게 보이며 멀리 서북으로로는 강화도 방면의 황해 바다가 보인다. 행주 산성은 그 경치로 보아도 우리 나라 명승의 하나로 될 수 있다.

행주 산성 싸움은 지금으로부터 360여년 전인 1593년에 승승장구하던 왜병을 평양성에서 몰아내고 우리 관군과 도처에서 인민들로 조직된 의병 부대들의 반 공격전으로 넘어가 왜병들에게 섬멸적 타격을 주던 시기에 벌어졌다.

행주 산성 싸움에 직접 참가한 것은 전라도 감사인 권 률 장군이 거느린 2천 3백 여명의 군대와 적의 침공을 피난한 부근 농민들과 부녀자들이였다.

권 률 장군의 부대는 1592년 7월에 의병 부대와 협동 작전을 하여 전라도 전주를 침공하려던 적을 웅치와 리치라는 고개에서 격파하여 전라도를 지켜낸 부대인데 이 부대는 그 후 경기도 수원 방면의 적 강점군을 소탕하면서 한강 이남 경기도 지역을 해방하고 있었다. 권 률 장군의 부대는 평양을 해방한 후 남쪽으로 진격하는 조 명 련합군에 호응하여 적을 서울 부근에서 포위 공격하고 패주하는 놈들을 한강 하류와 시흥 방면에서 섬멸하려는 적극적인 작전을 세워 1593년 1월 교통의 요지인 행주 산성에 이동하여 들어 왔다.

권 률 장군의 행주 산성 부대를 엄호하기 위하여 당시 부근에 있던 부대들도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즉 행주 산성의 남쪽 강 건너 양천 땅에는 병사 선거이가 거느린 4천 명의 군대가 진을 쳤고 또 강화도에 주둔하고 있던 김 천일이 거느리던 의병 부대는 륙지에 나와 통진 땅에 진을 쳤다.

평양 패전 후 4방에 널려 있던 일본 침략군의 주력 부대들이 거의 모두 서울에 집결하고 있었으므로 권 률 장군은 양주에 나가 서울 동부 지역에도 군대를 포치할 작정으로 행주 산성을 떠났다.

그런데 이 기간에 전선에는 큰 변동이 생겼다. 명 나라 장군 리 여송은 평양과 개성을 해방한 후 4백명의 적은 부대로 서울 가까이까지 진격하다가 서울 북방 40리 지점인 벽제관에서 일본군의 복병한테 기습을 당하여 그만 도로 개성에 들어가고 말았다. 그런데 딱한 노릇은 리 여송 부대와의 련락이 끊어진 것이다. 그러나 항상 적에 대한 경각성이 높으며 시간만 있으면 다음 전투 준비에 착수 하는데 습관이 된

행주 산성 부대는 중군장으로 있던 조 경의 지휘하에 피난하여온 부근 인민들과 함께 덕양산의 큰 나무를 베여 목책 (나무로 만든 방어용 울타리)을 세워 산성 방어를 강화하였다. 실로 이 방어 시설의 강화는 행주 산성 전투에서 큰 역할을 놀았는데 이 시설이 완공된 3일만에 적의 대규모적 공격이 있었던 것이다.

벽제관에서 얻은 약간의 승리에 자만한 일본군은 소수의 병력으로써 서울 가까이 들어와 다른 부대들과 련락이 끊어진 행주 산성 부대를 우선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앞으로 놈들이 서울을 퇴각할 때에 받을 측면의 위험을 제거하려는 것이였다.

1593년 2월12일 이른 새벽 서울에 있던 일본 침략군의 괴수들과 평안도, 황해도에서 패퇴하여 서울에 집결한 적 3만여명의 군대는 좌 우 2군으로 나뉘여 서울 서북 10리 지점에 있는 홍제원을 거쳐 행주로 행하였다.

행주 산성을 지키던 우리 군대와 인민들이 적의 대군이 공격하여 온다는 정찰병들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 벌써 적들은 행주 산성의 5리 지점에 접근하고 있었다. 권 률 장군은 적의 기병 선봉대 1백 여기가 접근하여 오는 것을 바라 보자 군대들에게 만단의 전투 준비를 갖추게 하고 정숙히 대기할 것을 명령하였다. 성내의 장병들과 피난하여 들어온 인민들은 자기의 생명으로써 조국의 영예를 고수하며 향토를 지키려는 결의에 충만되여 있었다.

적들은 선봉 기병대의 진격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또 행주 성내의 아군이 무서움에 떨어서 침묵을 지키는 줄로만 알고 일시에 행주 산성을 포위하고 1만명씩 3대로 부대를 편성하여 서로 교체하면서 련속적으로 공격하여 왔다.

성내에서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적의 무모한 공격을 기다리고 있던 우리 군대와 인민들은 활을 쏘고 돌을 던지고 또 큰 돌들을 산성 우에서 굴렸다. 산성에 피난하여 들어온 부녀자들과 심지어 어린애할 것 없이 돌을 날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힘에 맞는 돌들을 골라서 날러 오고 또 이 돌들을 기여드는 왜병들을 향해 던지고 굴렸다. 할머니, 어머니 아주머니들은 자기의 앞치마에다 돌을 담아서 날렀다. 이때의 녀성들의 영웅성과 애국심을 담아 전투 승리를 보장한 이 앞치마를 우리 인민들은 기념하여 오늘날까지 행주치마라고 부른다.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영웅적인 반격에도 불구하고 왜적들은 산성에 기어 오르려고 발악적으로 돌격하여 왔다. 그때마다 아군은 화기 (총과 포)를 련이어 발사하여 적을 섬멸하였으며 또 당시에 창안한 신식 무기인 화차(火車)가 나타나서 적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이 화차는 변 이중이란 사람이 발명한 것인데 그 구조는 철판으로 차체를 둘러싸고 철판의 벽에 40여개의 총 구멍을 내여 거기에 총을 걸고 쏘면서 사람들이 밀면서 나가는 즉 인력으로 밀어 나가는 땅크식의 무기였다.

매번 공격에서 실패 당한 적들은 그래도 더 발광하여 덤벼들었다. 점심때를 지나서부터 적들은 긴 나무로 높은 다락을 만들고 거기에 조총 (당시의 우수한 총) 사격수 수십명을 태워서 성안을 내려다 보면서 공격하여 왔다. 이때에도 아군은 지자포 (당시 대포의 일종)로써 이 다락을 분쇄하고 적을 섬멸하였다.

전투는 오전 6시경부터 오후 6시경까지 쉴사이 없이 계속되였다. 성내의 부녀자들은 전사들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하여 물과 간장을 떠주면서 격려하였다. 당시 사회는 로동 계급

이 없는 사회인 만큼 농민들이 중심이되여 군대로 또는 농민 그대로 전선에 나가서 싸웠다. 그들은 자기의 부모 형제 자매들의 혈연적인 뜨거운 지지속에서 피로를 모르며 굴할줄 모르고 싸웠다.

거듭되는 패배에 초조하여진 적은 당황하여 끌을 묶어 산성에 불을 질렀다. 불'길은 방책 (목책)을 태우고 드디여 행주 산성의 서북쪽 자성 (보조성)의 방책을 태웠다. 그리하여 이 곳을 담당하였던 승군 (중으로 조직된 부대)은 성내로 퇴각하였다. 이 틈을 타서 적들은 다시 전력을 다하여 성내에 침입하여 왔다. 권률장군 이하 용감한 장병들은 창검을 높이들고 백병전을 진행하였다. 행주 산성에 피난하여 온 우리 인민들도 남녀 로소를 가리지 않고 생사를 걸고 적과 싸웠다. 산성의 서북방을 발악적으로 공격하여 온 적들은 이번에도 큰 타격을 받자 하는수 없이 총 퇴각을 개시하였다.

음력 2월달의 오후 6시는 벌써 어두워 오고 있었으며 낮에 녹았던 발 진흙은 아직 다 얼어붙지 않았다. 잘 모르는 길을 어둠 속에 도주하던 적들은 갈피를 잃고 진흙탕에 피로한 발을 빠트리면서 허둥지둥하고 있었다. 이때에 우리의 용감한 군대들은 성문을 열고 나와 적을 추격하여 모조리 베여 죽이니 적의 시체는 행주 산성으로부터 서울 10리 밖까지의 30리 구간에 너저분히 깔렸다.

행주에서의 패전 후 적들은 서울을 버리고 도주 할 준비를 바삐 서둘었고 일시 개경에 머물어 있던 조, 명 련합부대는 진격을 개시하였다. 행주성에서의 대 승리를 얻은 우리 인민들과 군대들은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활발히 진출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 인민들이 행주 산성에서 빛나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선조들의 애국주의와 영웅주의와 무비의 용감성에 의한 것이다.



그릇된 관점

장 태우 동무는 평양 제 1 건설 트레스트 제 1사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벽돌공이다.

사업소에 갓들어 왔을 때에 장 태우 동무는 토공이였다. 토공으로 일할 때 태우 동무의 열성은 대단했다.

그리하여 그는 짧은 기간에 무기능공으로부터 5급 기능공으로 되였으며 자기 계획을 언제나 초과 실행하였다.

그 후 사업소의 필요에 의하여 태우 동무는 벽돌공으로 일하게 되였다. 그런데 벽돌공으로 일하면서부터 그의 열성은 갑자기 식어져 갔다.

즉 그는 직장 실적은 아랑곳 하지 않고 덮어 놓고 벽돌공은 마음에 들지 않으니 토공으로 돌려 달라는 요구만 제기하면서 로동 규률을 잘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술 전습회 날이면 퇴근 시간이 되기도 바쁘게 꽁무니를 빼군한다.

그러면 그가 이처럼 갑자기 락후 분자로 된 원인은 어데 있는가?

그것은 첫째로 장 태우 동무 자신의 사상상 결함에서 오는 것이며 둘째로는초급 민청 단체가 장 태우 동무의 사상 사업을 옳게 지도 못한데 있다.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상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이것은 바로 장 태우 동무에게서 발로 되였다.

그는 한 때 일을 잘 했다. 그런데 직종을 바꾸자 그의 열성은 식어져 마침내는 직장 규률까지 위반하고 있다. 왜 그렇게 되였는가? 그것은 장 태우 동무의 사상 관점이 옳지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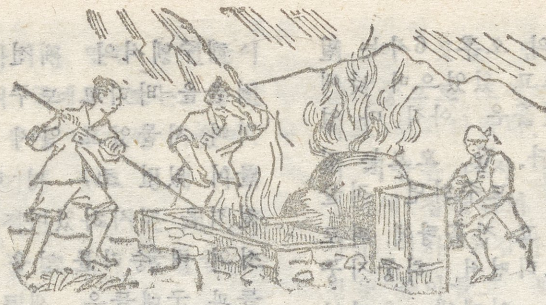
태우 동무는 자기가 일하는 목적을 국가적 립장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리익에다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개인의 리익에 부합될 때에는 일에서 열성을 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태공하는 것이다.

사상 관점이 바른 사람은 일도 성실하게 한다. 왜냐 하면 그런 사람들은 일하는 목적을 개인의 리익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리익에다 두기 때문이다.

즉 그런 사람에게 있어 개인의 리익이란 문제도 되지 않는다. 오직 국가의 요구, 국가의 리익이라면 언제 어데서나 열성껏 일한다.

평양 제 1건설 트레스트 제 1사업소 초급 민청 단체는 반드시 장 태우 동무와의 사업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생산 사업과 정치 사업이 잘 결부되여 진행되지 않는 곳에서는 생산의 성과를 보장하기 힘들다. 생산 사업에만 급급하고 사상 사업을 홀시하는 현상을 없애야 하겠다.



사회 발전 이야기

봉건 제도하에서는 노예 사회 보다는 생산력이 일층 발전하였다. 왜냐하면 봉건 제도하에서의 농노, 농민들은 노예와 달라서 령주의 땅에서나마 제 힘으로 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많으나 적으나 수확의 일부를 자기가 가지고 그것으로써 생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농노와 농민들의 생산 의욕이 높아졌던 것이다.

이런데로부터 농노, 농민들은 농사 짓는 방법을 개량하거나 더 좋은 농기구를 만들기에 힘썼다. 결과 쇠로 만든 괭이와 삽, 그리고 보습 등이 광범히 리용되였고 기타 나무로 만든 새로운 농기구들도 많이 리용되였다. 그리고 포도를 짜서 포도주를 만드는 기계라든가 또는 물방아를 비롯하여 농업 발전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축력도 더 많이 리용되였다.

농기구의 발전과 함께 농사 짓는 방법도 현저히 개선되였는바 벌써 봉건 사회에 이르러서는 농업에서 새로운 생산 부문들이 많이 나오게 되였다. 즉 노예 사회에서는 토지를 비옥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지 못한데로부터 주로 토지를 묵이는 방법으로 농사를 지었지만 봉건 사회에서는 각종 륜작(매년 같지 않은 곡식을 심는 것)의 방법을 많이 리용하였다.

이와 같이 경작 방법이 발전됨에 따라 노예 제도하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알곡 농사, 야채 재배, 포도 재배 등이 광범히 발전하였다.

뿐만 아니라 봉건 사회에 와서는 관개 수리 사업도 훨씬 발전하였다. 즉 소규모적인 저수지를 만든다든가 또는 도랑을 파서 물을 대는 등 관개 시설이 발전됨으로써 농업 생산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농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수공업과 상업 부문도 훨씬 발전하였다. 봉건 사회 초기 수공업자들은 농노들 처럼 봉건 령주들에게 예속되여 있었다.

봉건 령주들은 자기들에게 필요한 여러가지 생활 필수품을 얻기 위하여 자기 령지에다 야장, 목수, 미쟁이, 직조공, 빵 제조공 등 수공업자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리하여 초기의 수공업은 봉건 령주들의 성안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물건을 만들어 바치는 정도의 아주 유치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하여 많은 물건을 생산할 수 있게 되자 수공업자들은 얼마간의 물건을 령주에게 바치고는 나머지 물건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팔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였으며 나중에는 령주의 예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도시에로 모이게 되였다. 당시 도시의 주민은 주로 수공업자와 상인들로써 이루어졌다. 또한 당시의 도시는 봉건 령주들에게서 도주하여 온 농노들의 피난처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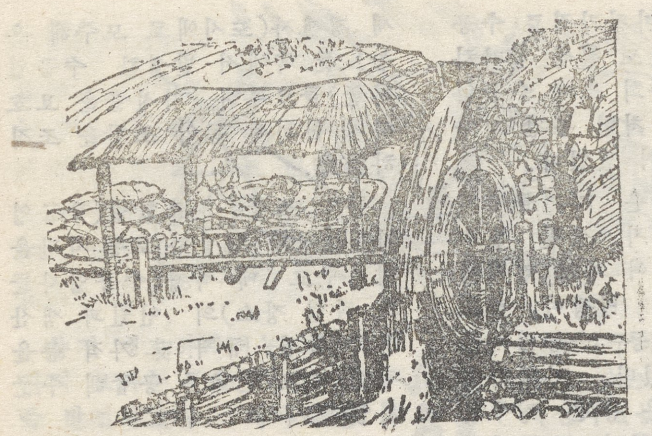
도시가 생긴 후 수공업은 더욱 발전하여 갔고 수공업자들은 자기들 호상간의 경쟁을 방지하며 봉건 령주들의 압박과 착취, 그리고 날로 늘어가는 새 경쟁자(도시에로 도주해 온 농노들 속에서 발생한 수공업자들)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업 조합을 조직하였다.

동업 조합은 조합원(수공업자)들에게 일정한 로동 시간을 정해주고 매 직장(수공업자들의 작업 장소)의 인원과 생산품의 품질, 규격 및 가격 등을 정해 주고 원료를 공급해 주군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비록 분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어떤 물건이든지 처음부터 마감까지 손으로 만들기는 하였으나 동업 조합의 발생은 도시 수공업의 발달과 기술 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다.

수공업자들과 함께 상인들도 자기들끼리 "상인 길드"라는 것을 조직하였다. "상인 길드"도 수공업자들이 조직한 동업 조합과 비슷한 일을 하였다.

봉건 사회에서의 상인들은 주로 외국으로부터 들어 온 사치품이나 수공업자들이 생산한 물품을 농촌에 가져다 령주나 농민들에게 팔고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져다 도시 주민들에게 팔군 하였다. 상인들은 농민들을 기만하여 그들의 물건을 눅게사고 자기의 물건은 비싸게 팔아서 많은 돈을 모음으로써 도시 주민들 중에



물방아로 낟알을 찧는데

서 가장 부유한 층으로 되였다.

그러나 봉건 사회도 노예 사회와 마찬가지로 내부 모순으로 말미암아 더는 발전하지 못하고 멸망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봉건 령주들은 농업 생산이 발전하여 수확물이 많아지면 많아 질수록 소작료를 높이고 게다가 여러가지 명목의 가렴 잡세 등으로 농노, 농민들을 더 가혹하게 착취하였다.

결과 봉건 사회 말기에 이르러 농노, 농민들의 생산 의욕은 종전과 같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식어져 갈 뿐이였다. 이것은 령주들의 가혹한 착취하에서 생산이 진행되는 봉건 사회의 테두리 안에서는 생산이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렇듯 봉건 사회 제도가 생산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해물

이라는 것은 봉건 사회 내부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부터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자본주의적 생산이란 생산 수단을 소유한 자본가가 생산 수단을 상실한 로동자를 고용하고 착취하여 많은 리윤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자본가와 로동자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봉건 사회 내부에서 자본가 로동자가 어떻게 발생하였는가!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생은 공장 수공업이 나오면서부터이다. 봉건 사회 말기에는 수공업자들은 많은 물건을 생산할 수 있게 되였다.

이리하여 도시와 농촌 사이에 상업이 더욱 발전하고 아직까지 좁은 지역 내에서만 교환이 진행되던 것이 차츰 넓은 지역에까지 퍼지게 되였다.

한편 항해술이 발전하고 라침판이 발명된 결과 바다 건너 외국과도 장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였다.

그런데 해외의 여러 나라에 상품을 팔기 위하여서는 많은 물건이 요구되였는데 당시 수공업은 그 규모가 협소하고 기술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 내자면 수공업이 아니라 대규모적인 생산 방식이 필요하였다.

그런데 수공업자 상인들에 대한 봉건 령주들과 지주들의 압박과 특히는 동업 조합의 각종 규정들은 수공업과 상인들이 마음대로 발전할 수 없게 하였고 수공업의 규모를 확장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여기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상인들이였다. 그래서 돈을 많이 모은 상인들은 처음에는 농민들에게 원료를 주어 물건을 만들게 하고 이것을 가져다 파는 가내 수공업을 조직하였는데 그 후에는 몰락 당한 수공업자들을 모아 놓고 물건을 만들게 하는 수공업 제작소를 조직하는데 까지 이르렀다.

이리하여 종전의 수공업은 규모가 큰 수공업 제작소와의 경쟁에서 몰락 당하고 몰락 당한 수공업자들은 제작소에 들어가 임금 로동자가 되였다.

이렇게 되여 봉건 사회 내부에서는 자본가와, 굶어 죽지 않기 위하여 자기 로동력을 팔므로써 착취 당하는 로동자가 생겨 났으며 새로운 자본주의적 생산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기계가 발명되면서부터 자본주의적 싹은 나날이 확대되여 갔다. 즉 도시의 대규모 공장, 제조소들이 급속히 늘어 갔으며 이 기업소들에서는 수많은 로동자들이 공동으로 일하였다.

자본주의적 싹은 농촌에서도 자라났다. 상품 생산이 발전되고 화폐의 수요가 늘어 감에따라 봉건 령주—지주들은 농민들로부터 현물로 받던 소작료



령주—지주들은 현물로 받던 소작료를 돈으로 받는 방법으로 농민들을 착취하였다



농노들의 폭동

를 돈으로 받게 되였다. 이런 데로부터 농민들은 돈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농산물을 팔았고 상인들과 고리 대금 업자들은 농민들의 농산물을 헐값으로 사는 방법으로 착취하였다.

이리하여 농촌에는 돈을 꾸어 준다던가 농산물, 가축, 농구를 헐값으로 사는 방법으로 착취하는 부농—기생층이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자본주의적 싹이 발생 발전하게 되였다.

이렇게 발생 발전한 자본주의적 요소들은 봉건 제도를 멸망시키는 요인으로 되였다.

그러나 봉건 사회를 뿌리채 뒤집어 엎은 결정적인 힘은 농노, 농민들의 폭동이였다.

봉건 사회 내부에서 새로운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전하고 상업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농노, 농민들에 대한 령주—지주들의 착취는 더욱 심해 갔다.

령주들은 상인들이 도시나 외국에서 가져 오는 사치품을 사기 위하여 많은 돈이 필요하였는데 그들은 이러한 돈을 농노, 농민들한테서 짜 내였다. 결과 농노, 농민들은 령주들과 봉건 제도를 반대하는 폭동을 자주 일으키군 하였다. 농민 폭동은 봉건 사회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힘으로 되였다.

그러나 농민들은 분산되여 있은데다가 그들의 투쟁은 자연 발생적이였기 때문에 승리하지는 못하였다.

봉건 제도로부터 자본주의 제도로의 이행은 부르죠아 혁명을 통하여 수행되였다. 즉 봉건 령주를 반대하는 농민의 투쟁을 농노제적 착취를 자본주의적 착취로 교체하며 정권을 자기 수중에 장악하기 위하여 대두하는 부르죠아지가 리용하였다.

이리하여 봉건 사회는 멸망하고 자본가 계급이 로동 계급을 착취하는 자본주의 사회로 바뀌여 졌다.

미제 조선 침략과 종교

김 희 일

종교는 다만 착취자와 억압자를 증오하는 계급 의식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침략자와 정복자를 미워하는 민족 의식까지도 마비시켜 버린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국주의 침략자들은 약소 민족들을 침략하는 수단으로 종교를 널리 리용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례를 많이 알고 있다.

16세기 이래 구라파 침략자들이 동방 제국을 정복함에 있어 우선 그랬다. 그들은 공공연한 무력적 침략에 앞서 우선 선교사들을 그 나라에 들여 보내고 다음에 군함과 상인들을 파견하는 것이 하나의 전통으로 되였다. 오늘날 세계의 잡다한 종교 가운데서도 기독교의 신자수가 제일 많다.

그것은 백인 침략자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데 주로 기독교를 많이 리용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주민들가운데서는 다음과 같은 말이 전해지고 있다 《백인들이 처음에 올 때 그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왔으며 우리는 우리들의 땅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이 돌아갈 때 우리들 손에는 〈성경책〉만 남고 그들의 손에는 우리의 땅이 들어 가게 되였다》 이 말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준다.

침략자들이 종교를 전파하는 기본 목적은 인민들로 하여금 오직 《하느님》과 《천당》에만 눈이 어둡게하고 조국과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있다. 사실에 있어서 그런 종교적 마수에 걸린 사람들은 그렇게 되고 말았던 것이다. 하나의 실례를 들어 보기로 하자. 지난 세기 초엽에 조선의 일부 기독교도들은 북경에 있는 서양 교회에 다음과같은 비밀 서한을 보내려고 하였다. 《지금 우리 조선에는 기독교를 믿을 자유가 없는데 만일 로마 법왕의 위력으로서 큰 군함 수 백척과 우수한 군대 5~6만을 끌고와서 조선을 정복하면 조선에서도 기독교의 자유가 허용될것이다. 외국 함대가 올 경우에는 조선내의 신자들은 쌍수를 들어 이를 환영하고 그들을 위하여 즐겨 길 안내를 할것이다》(1801년의 소위 황 사영(黃嗣永)의 백서(帛書)사건이라고 력사에서 부르고 있다.) 이렇게 종교가 침략에 아주 유리한 도구로 되기 때문에 미국 침략자들도 우리나라를 침략함에 있어서 각방으로 그리고 장구한 시일에 걸처 기독교를 전파 리용하여 왔던 것이다.

1, 1866~1871년 조선에 대한 미국의 침략과 종교

미제가 직접 조선을 침략하기 시작한 것은 1866년부터 인데 그후 계속된 매개의 침략 행동들은 그 어느 것을 막론하고 종교—기독교 전파 사업과 결부되여 있지 않은 것은 없다.

우리들은 1866년에 있은 미국선《샤만》호 사건을 잘 알고 있다. 《샤만》호는 평양 지방의 재물을 강탈할 목적으로 처음으로 조선에 침입하여 왔다. 이때 미국선을 타고온 선교사 토마스란 자는 대동강 하류 연안의 각지에서 기독교

를 전도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들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기독교는 하늘의 뜻을 받들어 인심을 바로잡고 사람들의 악습을 고쳐주고 무릇 사람을 어질고 의로운 사람으로 만든다》고 설교하면서 성경책들을 던져 주었다.

그런데 그들의 말과 행동은 같지않았다. 그들은 부녀자를 릉욕하고 백성들의 재물을 강탈하고 무고한 주민들을 총포로서 살육하는 야수적 행위를 일삼았다.

이 사건은 미국인들이 전파하는 종교의 진면모를 밝혀준다. 그런데 미국식 종교 선전에 중독된 일부 사람들은 해방전 인민의 손에 의해서 처단된 토마스를 고상한 《순교자(殉教者)》로 받들어 모시고 평양에는 《토마스 기념관》까지 세워 그를 찬송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였다. 이 사실은 사람에게서 건전한 사고력을 빼앗고 숭미주의(崇米主義)의 맹목적 의식만을 불어 넣는 미국식 종교 선전이 얼마나 해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는 교훈으로 된다.

미국 침략자들은 1868년에 조선 정부에 예속적 조약을 강요하기 위해서 충청도 덕산(德山)에 있는 대원군(大院君)의 부친인 남연군(南延君)의 묘를 도굴하는 비굴하고도 야만적인 원정을 조직하였는데 여기에서 미국인들은 조선인 천주교도들을 원정의 길앞잡이로 리용하였었다. 원정이 실패 되고 자기들의 죄상이 폭로되게되자 미국인들은 악랄한 이 강도 행위를 국제여론 앞에서 기만하기 위하여 원정이 조선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한 고상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파렴치 하게 떠벌리였다.

또한 미국 침략자들은 1871년에 자기의 극동 함대를 조선에 파견하여 무력 침공을 감행하였을 때에도 기독교도들을 침략적 목적에 리용하였다. 미국 함대가 강화도 남쪽에 진을 치고 있는 기간 미국인들은 조선 기독교도들로부터 끊임없이 국내의 정치, 군사 정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그들을 통하여 국내에 요언을 전파시키고 침략자를 반대하는 투쟁에 궐기한 조선 인민의 투지를 동요시키려고 하였다. 조국을 반역하는 길에 들어선 일부 기독교도들은 무력 침공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국내의 조선 군대는 로쇠한 병정 수천명에 불과하다》는 허위적 정보를 제공하는 매국적 행동을 서슴치 않았던 것이다.

이와같이 미국인들은 자기들의 침략적 목적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음폐하기 위하여서와 기독교 신자들을 침략의 길 안내자로 리용하기 위하여 무력 침공을 감행하면서도 종교를 전파시키는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실제에 있어서 조국과 민족에 대한 자각을 잃어버린 일부 기독교도들을 자기들의 침략 목적에 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리조말에 있어서 종교를 통한 미국의 조선 침략,

1882년 조선과 서양과의 최초의 불평등 조약인 《조 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한 후 미국은 조선 침략에 대대적으로 종교를 리용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1885년 4월부터 장로 교회계의 선교사 언더우드와 감리 교회계의 선교사 아펜셀라를 위시하여 수다한 선교사들을 조선에 들여 보냈다. 그리하여 조선에서 처음으로 미국 선교사들에 의한 공공연한 기독교 전파 사업이 주민들 속에서 시작되였다.

조선에 들어온 미국 선교사들의 대부분은 자본가들에게 매수되여 돈벌이를 위해서 떠난 협잡군과 모리배들이였다. 그들은 대단히 열심히 기독교 전도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것은 교회의 신자가 증가되면 그만큼 전도 비용이 많이 나와 자기의 호주머니가 불어 갔기때문이다. 이렇게 번돈으로 미국 선교사들은 조선 인민들을 착취하였다. 그들은 땅을사서 소작을 주고 과수원을 경영하고 심지어는 고리 대금까지 하여 조선 인민의 피'땀을 짜냈다.

미국 자본가들은 돈으로 매수한 선교사들을 조선 침략을 수행하는 임무를 담당시키었던 것이다. 미국 선교사들이 침략 정책 수행의 주요 담당자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미국의 통치자 자신들, 례컨대 1889년—1892년 기간에 국무 장관으로 있은 포스터까지도 다음과 같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의 기독교 선교사는 19세기 중엽까지의 외교, 특히 동양에 대한 외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필요한 존재였다. 그들이 동양에서 유력한 활동을 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와이에 대한 침략에 있어서도 일찍부터 각종 사업에 관계하면서 미국의 하와이 합병의 토대를 만들었다》라고. 조선에 온 선교사들도 바로 그러했다.

조선에 미국 세력을 부식하기 위한 주요한 방도는 미국을 《복음의 사도》로 선전하는 것이였다. 미국 선교사들은 《예수의 복음》을 미끼로 미국을 선전하여 주민들속에 숭미 주의사상을 퍼뜨렸다. 미국인들은 조선에다 교회에 부속된 근대식 병원과 학교를 세우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것은 얼마간의 기독교 계통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여 마치 미국이 조선을 문화적으로 개화시키는 듯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였다. 그와 아울러 그들의 조선인 앞잡이들인 정동(貞洞)구락부와 기독교 청년회 등을 사촉하여 미국의 문화와 생활 양식의 《우수성》을 널리 선전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조선 인민의 민족적 각성과 외래 침략자를 반대하는 투쟁 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속에 노예적 숭미 사상을 배양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미국식 종교 선전에 제일 먼저 속아 넘어간것은 조선의 통치 계급 상층부였다. 리조 말기에 있어 외래 자본주의 침략이 강화되여 국가의 독립이 위태롭게 된 환경에서 미국인들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조선의 《형》이나 《친우》로 자처하고 조선의 정치적 독립과 령토적 안전을 유지하는데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것 처럼 가장함으로써 손쉽게 통치 계급을 자기 영향하에 틀어 쥐게 되였다. 이리하여 미국 선교사들은 한 나라의 왕이 마치 이웃집의 한 늙은이나 되는 것처럼 왕실을 드나들면서 아양을 떨고 병을 고쳐주는 등 교활한 방법으로 롱락하여 고종(高宗)과 민비(閔妃)를 비롯한 기타 정부 고관들에게 자기들에 대한 반(半)미신적 신뢰를 조성시키였던 것이다.

당시 보수적인 정치가의 대표적 인물이였던 민 영익(閔泳翊)까지도 그가 말한바에 의하면 1884년 갑신(甲申)정변에서 봉변을 당하여 중상을 입은 후 미국 선교사이며 의사였던 알렌으로 부터 치료를 받는 기간에 숭미 사상을 갖게 되였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맹목적 숭미주의에 제일 먼저 사로 잡힌 사람은 고종이였다. 고종은 특히 1895년 일본인에 의한 민비 살해 사건이 있은후 불안에 싸여 자기 신하들까지도 믿지 못하여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를 밤마다 곁방에다 재우고 늦은밤에 총소리만 나면 급히 일어나 《이 서양인들 어데 있느냐》하고 불러서 선교사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잠을 잤다고 한다. 또 식사도 언더우드의 집에서 준비시켜 쇠를 잠그고 날나다 먹는 정도로 미국 선교사들은 왕실의 두터운 신임을 독차지하게 되였던 것이다.

이렇게 미국 선교사들은 교활한 방법으로 왕실과 정부 고관의 신임을 얻은후 그 신임을 침략 정책 수행에 리용하게 되였다. 즉 미국 선교사들이 조선 왕실로 부터의 두터운 신임을 받게된 시기에 수다한 미국인들이 외무부, 법무부, 군무부 및 기타 중요 정부 기관의 고문이란 명의로 요직에 들어 앉게 되고 그 자들을 통하여 조선의 정치를 좌우할수 있는 발언권을 가지게 하고 조선 정부로부터 대소 수많은 경제적 리권을 강탈하였던 것이다. 그중 몇가지만 들어보아도 조선 연해 선로(船路)설정권, 울릉도

림목 채벌권, 연해 진주(眞珠)채취권, 운산 금광 채굴권, 서울—인천간 철도 부설권, 서울내 전등, 전화, 전차 및 수도의 부설권등의 경제적 리권 강탈을 들수 있다.

이와같이 조선의 지배층은 미국인들의 달콤한 꾀임수에 넘어가서 미국인들을 믿고 또 그들에게 수다한 경제적 리권까지 제공하였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늘 하느님의 이름으로서 조선 사람들 앞에서 맹세한 조선에 대한 《형》으로서의 《원조》를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로골적 배신 행위를 감행하였던 것이다. 한두가지 실례를 들어보기로 하자.

언더우드를 비롯한 미국 선교사들은 민비 살해 사건후에 조성된 정치적 위기를 리용하여 조선 왕을 미국 공사관에 강제로 이동시켜 왕을 자기들의 손아귀에 틀어 잡고 미국의 괴뢰 정부를 조작할 음모를 꾸미고 1895년 11월 6일에 왕궁 습격 사건을 조직하였던 것이다. (이 습격 사건은 조선 수비대의 반격으로 실패하였다.)이렇게 미국 선교사들은 침략 정책 실현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또한 《친우》미제는 로 일 전쟁(1904—1905년) 전후시기에 일제의 조선 강점을 적극 원조하여주는 배신 행위를 감행하였다. 즉 미제는 자기의 가장 위험한 경쟁자인 로씨야를 극동에서 몰아내고 아세아에서 미국 자본을 위한 길을 닦는데 일본을 리용하기 위하여 조선의 독립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세에 암둔한 조선의 정치자들은 미국 《친우》의 《원조》만을 하염 없이 기대하고 있었으며 악명 높은 선교사로서 당시 조선 공사로 있었던 알렌의 거듭되는 기만적 보장——미국은 《조선의 독립을 말살하려는 어떠한 국가에 대하여든지 대책을 취할 용의가 있다》는 새'빨간 거짓말에 나라의 운명을 위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러나 미국 선교사들은 조선이 날마다, 시간마다 일제의 식민지로 떨어져 가는것을 차디찬 침묵의 미소로서 대하였던 것이다.

력사적 사실은 이러하다. 지난 세기 80년대 이후 미국이 조선에서 공공연하게 전파시킨 기독교와 이를 담당한 선교사들은 이상과같이 미국의 침략 정책을 실시하고 마침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려는것을 도와주었던 것이다.

3, 일제 식민지 통치하 종교를 통한 미제의 조선 침략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후 조선에 더욱 많은 선교사들이 파견되어 왔는데 조선내 외국인 선교사중의 70%가 미국 선교사들이 였고 그들의 영향하에 있는 목사들이 수만명이나 되였다. 성경책 출판사, 기독교 청년 단체, 교회에 부속된 학교, 병원도 해마다 늘어갔다. 미국은 무엇때문에 이처럼 많은 돈을 쓰면서 조선에서 종교 활동을 강화하였는가?

미국 자본가들은 조선이 비록 일제 식민지로 되였지만 침략적 야심을 버리지는 않았다. 기회가 오면 조선에서 일본을 몰아내고 미국의 지배권을 수립하려는 원대한 목적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

그 목적을 실현하자면 우선 기회가 올때까지 조선 인민의 해방 투쟁을 말살하고 독립을 하지 못하게 하는것이 필요하였다. 미국인들은 조선 인민의 해방 투쟁을 마비시키는 데는 종교가 제일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미국 선교사들은 조선 인민의 식민지 노예 생활은 《하느님이 주신 생활》이기 때문에 참고 기뻐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일제 식민지 통치 제도를 찬양하고 식민 제도는 영원한 것이라고 설교하였다. 로동자 농민들에 대해서는 《가난하게 사는것은 모두 게으른 죄니 하느님만 믿고 부지런히 일만하면 풍부하게 살수 있고 천당에도 갈수 있다》고 선전함으로서 대중속에 맑쓰—레닌주의 사상이 침투되는것을 막아 보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에 식민지 통치를 시작한 초대 통감인 이도히로부미(伊藤博文)는 미국 선교사에 대하여 《금후 조선을 정신적 방면에서 계몽하고 교화하는데 대해서는 당신들께서 맡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고무하였다. 미국 선교사들이 일제 식민지 통치를 안받침해준 대'가로 미국은 조선에서 획득한 경제 리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제 통치하에서 더욱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식민 제도를 유지하는 것 만이 종교 활동의 목적의 전부가 아니였다. 미국 선교사들은 동시에 조선을 미국의 식민지로 전화시킬 준비를 진행하기 위하여 숭미 사상을 고취하면서 미국에 맹종하는 분자를 계속 대량적으로 육성하며 또 그를 위한 정탐—매수 활동을 진행하였던 것이다.

물론 조선 인민의 절대 다수는 《미국 놈들은 큰 거짓말을 할때마다 성경책을 편다》는 말과 같이 미국식 종교 선전의 위선을 똑바로 인식하고 그를 반대하여 싸웠다.

그러나 미국 선교사들은 극히 적은 부분이지만 맹목적 숭미주의자들을 양성해낼 수 있었다. 즉 오늘날 남조선의 매국적 친미 집단을 이루고 있는 리 승만 도당들과 민족 해방 투쟁을 미제에게 팔아먹은 간첩 주구배 박 헌영, 리 승엽, 도당들을 들 수 있다. 미국의 한 신문이 해방전에 미국 선교사들이 리 승만에게 《재정적, 정신적 원조를 보장하였을 때 그의 반쏘 운동은 맹렬하게 되였다》고 한 기사나 박 헌영, 리 승엽 간첩 도당에 대한 공판 문헌이 보여주는 바와같이 박 헌영은 미국 선교사의 영향으로 숭미 사상을 품게되고 또 그로부터 간첩 임무를 받았다는 사실들은 조선 인민의 극악한 원쑤들을 미제의 충실한 앞잡이로 길드림에 있어서 모두 선교사들이 큰 역할을 놀았다는 것을 말하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미제는 일제 강점하의 조선에서의 《종교 활동》을 통하여 식민 제도를 유지 공고화하며 조선을 미국의 식민지로 만들데 대한 준비를 음흉하게 추구하여 왔던 것이다.

4, 해방후 종교를 통한 미제의 조선 침략

우리 나라가 위대한 쏘련 군대에 의하여 해방된 후 남조선을 강점한 미 제국주의는 그가 길러 놓은 리 승만 역도를 내세우고 로골적인 침략의 길에 들어섰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북반부 인민들이 이루어 놓은 찬란한 성과에 고무되어 앙양된 인민들이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반대하는 거족적 투쟁이였다.

그리하여 미제는 해방 후 첫날부터 남조선 인민들의 반제 투쟁을 마비시키며 계급적, 민족적 의식의 장성을 억압하기 위하여 퇴폐적이고 부화 방탕한 미국식 생활 양식의 전파와 더불어 종교를 그 어느 때 보다도 광범히 전파 하기에 광분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오늘날 리 승만역도들은 국가 권력을 가지고 종교를 대중에게 강요하고 있다. 국가, 사회 생활의 전체 분야에 종교의 마수가 뻗치고 있다. 강제 징집 당한 괴뢰 《국군》 내에서도 병사들의 반미 감정을 억압해 보려고 선교사들이 둥지를 틀고 있다. 심지어는 학원에까지 종교를 침입시켜 학생 청년들에게 노예적인 굴종을 선전하고 있다. 미제와 리 승만역도들은 청년 학생들이 옳바른 생각을 갖고 과학적이며 진보적인 것을 지향하는 것을 겁내고 있다.

남조선에서는 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라하여 박해하는 중세기에 있어서와 꼭같은 암흑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미제는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기 위하여 종교를 리용하면서 다른 한편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장엄한 사회주의 건설을 파괴해보려고 최후발악적인 어리석은 책동을 감행하면서도 역시 종교를 리용하

고 있다. 그것은 이미 적발 처단된 간첩 분자들의 사건에서도 명백히 볼 수 있다. 한 실례로서 이미 오래전에 적발되여 법적 처단을 받은 간첩 리 건호와 그 일당의 사건을 들 수 있다. 리 건호는 종교의 간판밑에 숨어서 기독교 목사란 직업을 리용하여 오래 전부터 숭미 사상을 고취하며 당과 공화국 정부를 반대하는 반동 선전을 감행하였다. 이 자는 적들에 의한 일시적 강점 시기에 《반공 투사회》중앙 본부 선동과장의 직에서 반인민적 범죄 행위를 감행하였으며 적들의 패주와 함께 월남하여 간첩 훈련을 받고 다시 북반부에 침입하여 간첩 행위를 하기 위하여 건전치 못한 기독교인들을 규합하다가 적발된 것이였다.

이와 같은 여러 사실들은 미제가 자기의 파괴 활동에서 종교 신자들을 리용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술책을 다하고 있으며 종교 신자는 그의 비과학적 세계관으로 인하여 《예수의 신도》로 가장하는 적들의 모략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원쑤들이 견실치 못한 사람들에게 종교와 미신을 믿게 한다면 자기들의 목적에 쉽사리 리용할 수 있으며 자기들의 함정에 끌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미제는 북반부에서 사람들의 의식 속에 남아 있는 자본주의적 잔재의 하나로서의 종교적 의식을 유지 소생시켜 이를 리용하기 위하여 백방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모든 진실한 종교인들과의 단결을 도모하며 그들을 조국의 통일 독립과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 하게끔 방조를 주고 있다.

그러나 종교는 미신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볼때는 기만적인 자기 위안 이외에 아무런 현실적 리익도 주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볼 때는 과학과 진보를 방해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종교와 그의 해독적 영향으로부터 그들을 해방하고 그들을 과학과 진리에 눈뜨게끔 과학적 세계관으로 교양하는 사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백년간이나 종교를 조선 침략에 리용하여 온 미제가 오늘 더욱 발악적으로 종교를 침략의 목적에 리용하려고 광분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그 필요성은 더욱 절실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그 어느때 보다도 종교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도구이며 종교는 진보와 과학을 위한 우리 젊은 애국자들의 극악한 적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것이다.

진리와 정의를 사랑하는 청년들은 종교를 가지고 지상의 락원인 사회주의 건설을 방해하려 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을 치솟는 격분으로 증오 할 뿐만 아니라 아직 일부 사람들 속에 남아 있는 종교적 관념을 일깨워 광명한 생활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방조하여 주어야 한다.

이것은 조국의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청년들이 지니고 있는 영예로운 임무의 하나인것이다.

당신은 전기 절약을 모르오?





—리 기영 작 《두만강》 제 2부에 대하여—

《두만강》 제 2부는 일제와 그와 야합한 친일 주구, 지주들과 이를 반대하여 싸우는 농민들 사이에 벌어지는 심각한 갈등을 작품의 기초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에 기초하여 조선 인민의 고상한 애국주의 사상, 조국에의 다함 없는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다.

곰손이를 비롯한 긍정적인 인물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유일한 목표는 조국의 독립과 자유이다. 그들이 그처럼 조국에 대하여 충성을 고여 바쳤기에 생명을 내 걸고 싸울수도 있었으며 그처럼 암담하고 고된 생활 속에서도 한 줄기의 희망을 가슴에 품고 이겨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다.

주인공 곰손이는 칠소 마을 사람들의 동정과 간곡한 간병으로 하여 패병하게 된다. 그는 병석에서 일어나자 다시금 농사일에 달려 붙는다. 압록강을 건너 의병들에게 련락간 쇠동이가 돌아 올 때까지 기달려야 한다는 데도 리유가 있었지만 그는 식솔들과 같이 칠소 마을에서 새로운 생활의 터전을 닦기 시작한다. 무산 지대에 처음으로 벼 농사를 부쳤다는 것이며, 마을 사람들의 로력을 덜어 줄 양으로 물레 방아를 만드는 것 등은 곰손이의 근면하고 지침 있는 성격적 면모와 함께 갸륵한 동포애와 굴하지 않는 투지를 뵈여주고 있다. 삶에 대한 강한 지향, 또 그것을 자기의 근력으로 꿋꿋이 바로 잡아 나가는 곰손이의 모습은 아무런 역경 속에서도 이기여 내는 당시의 우리 농민들의 슬기로운 성품의 일모이다.

곰손이가 칠소 마을의 생활에서 얻어진 교훈은 무엇이였던가?

그것은 일제가 침략하고 있으며 친일 주구와 지주가 득실거리고 있는 조건하에서는 조선 땅 치고 어디를 가나 농민들의 생활은 쪼들리고 기아 속에 헤매게 되였다는 것이였다.

물레 방아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건은 단적으로 이런 사정을 말해주고 있다. 마을 사람들의 로력을 덜어 주고 싶어서 자신의 힘을 아끼지 않은 곰손이의 아름다운 마음과 또 물레 방아에서 리윤을 더 많이 얻기 위하여 윤 풍헌, 김 장의, 황 부자 세 지주 사이에 벌어지는 추태는 얼마나 대조적인가!

곰손이는 생활에서 얻어진 경험을 통하여 진리를 판단할 줄 알았고 또 그것을 끝내 실천에 옮기였다. 생활적인 진리는 곰손이로 하여금 실천 세계에로 추동시켰으니, 정의롭고 슬기로운 사업에 대한 그의 진취적인 투지와 사악하고 부정한 것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걸러 주고 있다.

쌍둥이 형제를 맞아 들이는 데서의 곰손이의 결단성, 또 아들 씨동이와 딸 분이 마저 의로운 사업을 위해 북간도에 보내고 나서도 개인적인 비애에 사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고 떳떳이 대하는 그의 심정은 일개 아버지로서의 감정을 초월한 고상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 곰손이의 조국에 대한 사랑이 크지 않았고 승리에 대한 그의 신념이 떳떳하지 못하였던들 이렇지는 못하였을 것이 아닌가!

조국에 대한 사랑이 그처럼 열렬하였기 때문에 그는 원쑤와 싸우는 마당에 섰을 때에 엄격한 투사로 믿음직한 동지로 될 수 있었다. 곰손이의 투쟁은 의병 운동의 지도자의 한 사람인 안 무한테서 임무를 받고 국내와 국외의 의병들의 련락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전개된다.

《군기제》를 계기로 한 투쟁, 《공진회》 참관에서 일제의 기만 정책을 폭로하는 선전문을 교묘하게 산포하는 것 등에서 곰손이의 침착하고 비타협적인 성격이 들어 난다.

적에 대한 곰손이의 증오심, 투쟁 과정에서의 침착성은 그의 생활 경험, 그의 지향에서부터 흘러 넘친 것이다. 곰손이의 투쟁에서 감명을 받는 소이도 너무도 생활적인 자기 신념에서부터 울어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두만강》 제 1부에서 이미 곰손이의 젊은 시절과 친숙해졌다. 옥녀봉 전설과 관련되여 엮어지는 봉이와의 애정, 내'가에 논을 일쿠어 다기지게 살아 가려고 서두는 그의 앞에는 미구에 도래할 저바랠 수 없는 화려한 꿈을 지녔었다. 그러나 그의 꿈은 젊은 시절에 일제 통치배들의 학정과 지주들의 등'살에 깨지고 말았으니, 그것은 오로지 사람들을 빈궁과 암흑으로 떠미는 세력들과 싸움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었다.

곰손이를 협의하여 꾸며낸 《위조한 투서》와 곰손이의 체포는 일제 경찰의 무능력을 백일하에 폭로하였다. 《군기제》를 계기로 삼엄한 경계에도 불구하고 의병들한테 타격을 받은 놈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의병과 련루하고 있는 관계자를 적발하여야만 했다. 그래야만 일제 고등 경찰의 면목과 위신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모진 고문을 곰손이에게 들씌웠으나 그의 투지를 꺾을 수 있었겠는가! 곰손이는 3. 1 운동이 폭발되였을 때에도 복영중이였으나 옥내 투쟁을 감행한다.

칠앗에서의 헌병소 습격과 관련하여 그가 그 곳으로 이송되여 간 후에도 투지는 여전하다. 그러나 갖은 폭행은 곰손이를 죽음으로 몰아 넣었다.

《…우리는 아무 죄가 없소, 우리 농사'군이 무슨 죄가 있다구… 우리를 죄인으로 몰려는 제놈들이 정말 용서치 못할 죄인이요! 그러므로 나는 죽는 것이 조금도 겁나지는 않소, 나는 떳떳하게 죽겠소》

라고 동지들한테 고하는 그의 심정이야 말로 깨끗하고 량심적으로 생애를 살아 왔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체득한 진리――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심신을 바쳐 온 고상한 정신의 체험이다. 이렇게 곰손이는 자기의 생애를 남부럽지 않게 회고하며 떳떳하게 동지들과 나아가서는 조국 앞에 마지막으로 인사를 한다. 곰손이는 옥사하였으나 그의 정신은 길이 살아 남아 있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의 한 사람인 씨동이는 투쟁 과정에서 장성하는 투사의 형상이다. 그의 성격 발전은 준비 시기인 명동 학교 시기와 그 후 시기로 볼 수 있으나 이 두 시기가 밀접히 결부되여 있다.

동북에 건너가 그는 무사히 서신을 전하고 나서 안 무의 지도 하에 명동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 아버지 곰손이의 투지와 직접 안 무에게서 전투 훈련을 받은 그는 명동 학교를 나오면서부터 튼튼한 투사의 자질을 소유하게 된다.

씨동이가 탐사대로서 국내에 파견되여 송월동에서 김 진해 환갑 잔치를 불바다 속에서 맞이하게 한 사건은 씨동이의 현철한 능력을 여실하게 뵈여 준다. 그것은 김 진해가 친일 주구이며 지주로서 농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응당히 처벌을 받아야만 하였고 그것이 인민들의 원한을 풀어 주는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다. 당시 송월동 근처의 사람들은 일제의 탄압이 혹심하여 지고 의병들의 투쟁이 거의 없었던 관계로 암담한 세계에 사로 잡혀 있었다. 인민들에게 빛을 주어야 했다. 인민들의 동태를 민첩하게 탐지하고 이에 적응하여 행동을 실천하는 것은 참된 인민의 대표자들의 본성이다. 거사가 있었던 탓으로 송월동 사람들은 의병들의 힘을 믿고 행복에 대한 신심을 더욱 가다듬게 되였다. 그럼으로써만이 3. 1 운동이 있었을 때 이곳 주민들은 씨동이의 지도 하에 열렬하게 일어 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3. 1 봉기는 씨동이의 지도자로서의 재능을 더욱 발휘시켜 준다. 봉기가 일어 났을 때 씨동이는 사뭇 희망을 품고 서울에 당도한다. 그러나 소위 《유지》라고 자처하며 봉기의 《지도자》로 나섰던 자들은 인민들의 기세가 높아짐에 겁을 먹고 비겁하게 움추려 들었다. 그들은 무저항주의를 표방하고 일제에게 청원하여 《청원식》 독립을 선언하였던 것이다.

이런 현상은 씨동이로 하여금 울분을 자아내게 했으며 새로운 거사를 꾸미게 하였다. 그는 송월동에 있는 제사 공장, 탄광 로동자들의 궐기에 맞추어 최 동욱, 강 덕만 의병들과 김 춘실, 김 관일, 맹 덕삼 등과 같이 주재소며 헌병대를 습격한다. 일제의 식민지 기반 밑에서 살아 오면서 쌓이고 쌓였던 울분이 활화산처럼 타 번진 것이였다.

이와 같이 씨동이가 장성함에 있어서는 사'적인 환락을 용감히 버려야만 했다. 옥이와의 애정 관계에 있어서 씨동이에게도 그에 대한 그리움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옥이와의 관계를 지속한다는 것은 그에게 고민 밖에 줄 수 없었으며 또한 옥이의 성격이 의병의 안해로서는 적합하지 않음을 뉘우치고 애정 관계를 저버린다. 이런 결단성은 고상한 애국주의 사상의 원천 속에서만 싹트고 자랄 수 있으며 확고한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몇 해 동안 동북에 있다가 육친들의 곁을 지나면서도 뜻이 컸으므로 그리운 상봉을 억누르는 장면 등은 씨동이의 조국애의 일념에 불타 오르는 강직한 성격의 일모를 뵈여 준다.

이 밖에도 《두만강》 제 2부에는 수많은 습격 장소에서 전사하는 강 덕만, 갖은 고통을 다 겪으면서도 의병 활동을 기다려 활동하는 최 동욱, 인간의 량심과 선조 포수들의 절개를 지켜 의병들을 방조하는 사 포수… 이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사상은 모두가 조국의 독립에 있었다. 분이가 자기의 사랑을 박차고 동북에 건너 가는 데서도 이 처녀의 가슴에 타는 애국의 정열을 짐작할 수 있다.

《두만강》 2부는 공화국 북반부의 행복한 품 속에서 공부하며 로동하는 우리 청년들을 원쑤에 대한 불타는 증오, 그리고 조국에 대한 애국주의 정신으로 열렬하게 고무한다.

강 능 수

바람은 왜 부는가?

초 가을이 되면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나무'잎들이 살랑거리며 나무 가지가 흔들리며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옆으로 나붓기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겨울철엔 맵짠 칼 바람이 불며 봄이면 훈훈한 남쪽 바람이 분다. 그러면 바람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왜 불겠는가?

바람이란 어떤 방향과 속도를 가지는 공기의 수평 운동을 말한다. 바람의 세기는 일정하지 않다. 어떤 때는 나무'잎이 살랑살랑 흔들리는 정도로 약하게 불지만 심한 경우에는 큰 나무나 집도 너머 뜨릴 수 있는 정도의 세찬 바람도 불어 적지 않은 손해를 주는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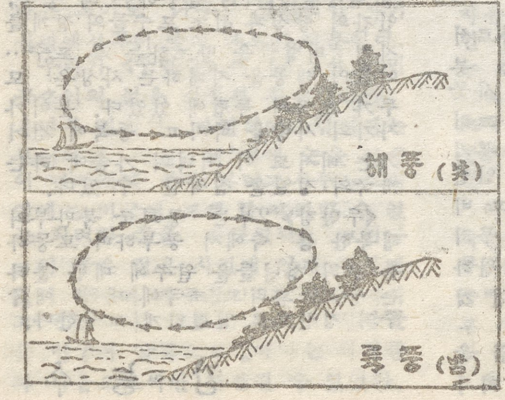
그러면 공기의 흐름은 어떻게 생기게 되는가?

그릇에 물을 담고 밑에서 불을 때면 더워진 물은 우로 올라가며 우에 있든 찬 물은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 공기의 흐름도 이와 같은 리치로부터 생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표면은 산, 평지, 바다 등의 여러가지 지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태양으로부터 받는 열량이 지형에 따라 다르다. 또한 위도에 따라서 태양으로부터 받는 열량이 다르기 때문에 지대에 따라서 공기가 가열되는 정도도 달라진다. 이리하여 공기의 찬 부분과 더운 부분이 생기게 되며 우에서 지적한 물이 움지기는 것과 같이 공기가 움지기게 된다. 이와 같은 공기의 흐름을 대류(對流)라고 한다. 그러면 대류 작용을 하는 바람을 생각하여 보자.

해안 지대에 가면 낮에는 바람이 바다에서 륙지를 향하여 불며 밤에는 륙지에서 바다쪽으로 분다. 이 현상은 다음의 원인에서 온다. 해가 뜨면 륙지와 바다가 동시에 가열(加熱)되는데 이때 륙지는 바다보다 빨리 가열된다. 그러므로 륙지에 있는 더운 공기는 우로 올라간다. 올라간 공기 때문에 륙지의 상공은 기압이 높아지며 공기는 바다쪽으로 흘러 나간다. 한편 바다면의 상공은 륙지에서 흘러 온 공기가 모여서 공기의 압력이 높아지며 공기는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 바다면의 공기는 다시 륙지로 흐르게 된다. 이것을 해풍(海風)이라고 한다. 이때 우'층과 아래'층은 풍향이 반대이며 또한 바다 우에서는 밑으로 내려 오는 기류(氣流), 륙지 우에서는 우로 올라가는 기류(氣流)가 생겨서 한개의 가락지 형의 기류를 형성한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다시금 륙지가 태양으로부터 받은 열량이 적어지며 바다와 륙지의 기온이 거의 같아진다. 밤이되면 륙지 우에 있는 공기는 바다 우에 있는 공기보다 먼저 차거워 진다. 따라서 륙지 우의 공기는 수축되고 그 상공에 있는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 이리하여 륙지 우의 공기는 압력이 커지게 되며 륙지로부터 바다에로 공기의 운동이 시작된다. 이것을 륙풍(陸風)이라고 한다. 이때 륙지 우에서는 밑으로 내려 오는 기류, 바다 우에서는 우로 올라가는 기류가 생긴다. 즉 해풍때와 반대 방향의 기류 현상이 생기게 된다. (그림 1)

(그림 1) 해륙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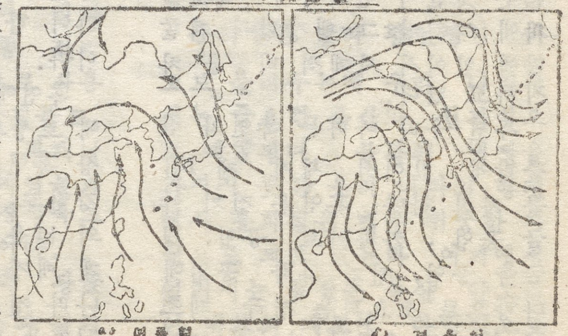


바다와 륙지 사이에서 하루 동안에 일어 나는 이와 같은 바람을 해륙풍(海陸風)이라고 하는데 해륙풍의 영향은 해안으로부터 약 50리 거리까지 미친다. 그러나 해륙풍은 맑은 여름날에 잘 일어나며 날이 흐리든가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륙지에서 주간에 더워지거나 야간에 차지는 현상이 현저히 나타나지 않을 때는 일어나지 않는다. 해륙 풍외에 공기의 대류 작용에 의하여 생기는 바람에는 산곡풍(山谷風)이라는 것이 있다.

바람이 일어 나는 다른 원인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린접하여 있을 때 즉 밀도가 서로 다른 공기가 린접하여 있을 때 일어 난다. 이때 밀도가 큰 찬 공기는 밀도가 작은 따뜻한 공기의 밑으로 내려가며 따뜻한 공기는 우로 올라가게 된다. 겨울철에 우리 나라에서 부는 찬 바람은 이 원인 때문이다.

륙지와 바다 사이의 열적 차이에 의하여 계절적으로 변하는 바람을 계절풍(季節風)이라고 한다. 이 바람은 해륙풍 보다 규모가 매우 크다. 지구상에서 계절풍은 남반구 보다 륙지가 많은 북반구에서 심히 나타나며 특히 북반구의 중위도 지방 (북위 35～50도)에서 현저 하다. 그것은 열대 지방과 한대 지방은 겨울과 여름에 바다와 륙지 사이의 온도 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계절풍은 5월부터 9월까지에 남동 또는 남서 방향에서 불어 오며 풍속은 비교적 약하다. 이 여름 철은 대륙이 태양으로부터 열을 받아 기압이 낮아지고 바다는 비교적 차기 때문에 기압이 높은 구역으로 간다. 그러므로 태평양 부근에 형성된 고기압 세력 때문에 공기의 흐름은 남에서 북으로 향하게 된다. 10월부터 3월경 까지는 북서풍이 강하게 분다. 이것은 겨울 철에 아세아 대륙이 심히 랭각되므로 대륙에 생긴 찬 공기가 대륙 동해 안에 있는 우리 나라를 향하여 흘러 나오기 때문이다. (그림 2)

(그림 2) 계절풍



여름철 / 겨울철

우리는 여름날 해'빛이 무덥게 내려 쬐고 기온의 분포가 극히 균일하지 못할 때 흔히 사방에서 땅 우의 먼지를 휩쓸어 우로 빨아 올리는 회오리 바람을 보게 된다. 이것은 우로 올라 가는 대단히 센 기류가 있어서 우에 올라가서는 빨리 흐터지므로 밑에서는 공기가 희박해지기 때문에 사방에서 그곳으로 공기가 모어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중심은 지형과 지구 자전의 영향을 받아서 복잡하게 이동한다. 심한 것은 나무를 꺾어 버리며 지붕을 벗겨가며 때로는 가축과 사람까지 날아 올린다. 때때로 비와 함께 많은 물'고기가 떨어지는 일도 있다. 이것은 바다에서 회오리 바람이 불 때 물'고기가 따라 올라 갔다가 비와 함께 떨어지는 것이다. 옛날에는 바다나 호수에서 회오리 바람에 의하여 물이 올라 가는 것을 룡이 올라 간다고 생각하고 룡올림(龍卷)이라고 불렀다.

중앙 기상대

리 창 흡



김 정 회

(제호에서 계속)

5) 비금속 광물 자원

우리 나라에는 수 많은 비금속 광물이 매장되여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흑연, 형석, 운모, 중정석, 린회석, 류화철, 활석, 석면, 석회석, 규사, 장석, 랍석, 고릉토, 및 석고 등이다. 이들 광물 중에서 많은 것들이 현재까지 확정된 바에 의하면 그 매장량과 채굴량에 있어서 세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흑연 우리 나라는 흑연의 산출량에 있어서 세계 제 1위를 차지 한다. 흑연은 전기 야금 공업 , 카바이트 공업, 경금속 공업, 전기 화학 공업에 다량으로 소요되는 전극 제조의 원료로 될뿐만 아니라 도가니, 연필, 전지 등의 제조 및 기타 각 방면에 널리 리용된다.

가장 오랜 옛날에 형성된 우리 나라의 지층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세계 제 1의 매장량을 가진 린상 흑연의 광상을 이루어 놓았다.

린상 흑연이 많이 매장되여 있는 곳으로는 자강도 일대와 평안북도의 여러 지역을 비롯하여 합경북도의 남부 지역 등이다.

흑연에는 린상으로 된 것 외에 토상으로 된 것이 있는데 토상 흑연은 평안남도, 함경남도,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의 넓은 지역들에 거처 풍부하게 매장되여 있다. 과거 우리 나라 전체 흑연 산출량의 평균 71%는 북반부 지역에서 산출되였다.

형석은 천연산의 불화 칼슘이다. 이 광물은 불에 넣으면 소리를 내면서 깨지며 형광을 방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형석의 용도는 매우 넓다. 즉 알미늄 제련에 있어서 중요한 인조 빙정석 (人造氷晶石) 의 제조, 제철 및 제강, 제약 및 화학 공업, 법랑, 세멘트, 도료, 광학 공업 등에 대표적으로 리용된다. 그의 매장 지대는 황해북도, 황해남도 평안남도, 함경남도, 강원도의 일부와 경기도의 포천군, 충청 북도의 청주군 영동군 등지이다.

운모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예로부터 돌'비눌이라고 불리우는 것으로써 세계 굴지의 산액을 내는 우리 나라의 자랑스러운 광물이다. 운모는 잘 쪼개지는 성질과 탄성, 내열성, 및 전기 절연성 등의 성질이 있으므로 난로, 용광로 등의 진동을 크게 받는 창문에 판유리 대신으로 사용하며 기타 방열용, 보온용 및 각종 전기 기구에서의 절연체 등으로 사용된다. 그의 산지는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평안남도의 일부 지역들과 충청남도의 공주군, 경상북도의 안동군 상주군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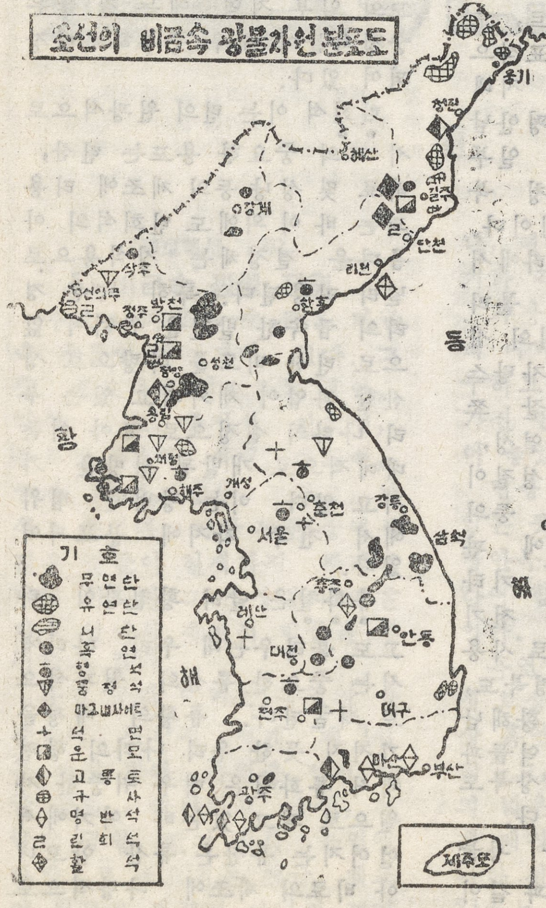
중정석도 역시 비금속 광물 중 흑연, 형석, 운모 등과 같이 세계적인 매장량과 산출량을 가지는 광물의 하나이다. 중정석은 자체의 화학 성분에 따라 바륨 공업의 원료로 됨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페인트, 제지, 고무 및 직조 공업에서 가중제 (加重劑) 또는 혼합제로 많이 리용된다. 이의 분포 범위는 대단히 넓으며 특히 강원도의 일부 지역들에는 질 좋은 중정석들이 매우 풍부히 매장되여 있다.

린회석 이는 린의 원광석으로서 그의 중요한 용도는 린산, 비료 및 성냥 등의 제조에 리용되는 바 이 외에도 린회석의 아름다운 결정체는 장식용으로 널리 리용된다. 특히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 린산 비료를 다량으로 생산할 과업이 제기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실정으로 보아 이는 대대적으로 개발될 전망을 가지고 있다. 이는 광범한 범위에서 전국 각지에 분포되여 있다.

류화철은 달리 황철광이 라고도 불리우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중요한 류산의 원광석으로 채굴된다. 류황의 매장을 가지지 못한 우리 나라의 형편에서 류화철은 매우 귀중한 자원으로 되고 있는바 여기에서 얻어지는 류산은 류산 암모니아 비료의 제조에 다량적으로

수요될 뿐만 아니라 화학 공업 전반에 거쳐서 많이 소용되는 기초 약품으로서 그 의의가 대단히 크며 그 외에도 류화철에서 얻어지는 류황분과 함께 야금, 전기, 인조견, 및 고무 공업 등에 많이 리용된다. 중요한 산지로써는 강원도, 합경남도, 량강도, 평안남도, 평안 북도, 자강도, 황해 남도, 황해 북도의 넓은 지역들에 풍부히 매장되여 있다.

활석은 마그네슘분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이 분해하여 된 것인데 용도는 과거로부터 〈곱돌〉 이란 명칭을 가지고 석필로 많이 리용되여 왔고 근년에 와서는 도자기, 유리, 의약품 등에서 그의 원료로 리용되고 있으며 기타 감마제, 윤택제 보온 방열제 등에 널리 리용된다. 강원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들이 그 주요산지로 되고 있다.



석면은 천연적인 광물질 섬유인바 내화성이 세고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방화천 (防火布) 방화벽, 기관차, 철관 등의 보열(保熱) 외피 등에 리용된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 풍부히 매장되여 있으며 조선 각도에 분포되여 있다.

석회암은 탄산 칼슘을 주성분으로 하는 암석인데 건재 공업의

쎄멘트 및 석회 생산에 있어서 기본 원료로 될 뿐만 아니라 유리 공업, 카바이트 공업, 소다 공업 등의 원료 및 야금 공업의 용재로서도 다량적으로 소요되는 광물로서 그의 용도는 매우 크다. 이는 우리 나라의 각 지층 마다에서 다량으로 산출되는바 그의 매장량은 실로 무진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우리 나라의 풍부한 전력, 흑연, 무연탄 등에 기초하여 크게 발전시킬 전망이 있는 건재 공업, 화학 공업의 수요를 원만히 충당하게 될 것이다.

규사는 초자 (유리) 공업에서의 기본 원료로 된다. 몽금포는 그의 산지로 유명하며 그 외에도 황해남도, 함경남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들과 충청북도의 서산군, 전라남도의 무안군, 령암군, 강진군, 고흥군, 경상남도의 울산군 등지에 널리 분포되여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황해남도의 규사는 질이 좋고 매장량이 많은 것이 그 특징이다.

고룡토는 장석이 분해되여 생기는 점토를 말하는데 달리 고룡토, 도토 (陶土) 또는 자토 (磁土) 라고도 불리운다. 이것은 전 조선 각지에 널리 분포되여 있다. 대표적인 산지로서는 평안남도,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들과 전라남도의 해남군, 진도군, 경상북도의경주군, 경상남도의 밀양군, 김해군, 창원군, 하동군 등 지역이다.

5. 희유 원소 광물 자원

희유 원소 광물이라 말할 때 그것은 이 광물을 포함하는 광상이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발견하거나 또는 채굴 처리하기에 대단히 곤난한 원소들을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 이 광물이 처음으로 채취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47년전인 1910년 미국 놈들이 사금을 채취하다가 흑사 (黑砂) 에서 모나즈를 선광하여 미국으로 략탈해간 것이 그 시초로 되고 있다. 비록 이와 같이 그의 개발 력사는 짜르나 이 광물들에서 야금 공업, 정밀 기계 공업, 화학 공업 등의 발전에 따라 그의 수요는 급속히 증대되였으며 매우 중요한 역활을 놀게 되였다.

때문에 조선 로동당 제 3차 대회 보고에서 김 일성 동지는 앞으로 희유 금속과 유색 금속의 합금 제조 공업을 창설할 것을 전투적 과업으로 제기하시였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세계 사람들이 〈희유 금속광의 보고〉

라고 부르리 만큼 이 희유 금속 광물들이 풍부하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의 정형을 품종별로 보기로 하자!

리시야 운모 이는 리시움의 원 광석인데 리시움은 경금속과 합금하여 베아링 합금, 스테인레스강 등의 제조에 리용된다. 이 외에도 리시움의 화합물은 경금속의 용접제, 탈수제, 의약 등의, 원료로 리용되며 리시야 운모 자체는 직접 내열 초자 및 X선 불투광의 란데만 초자의 제조에 리용된다. 이는 황해북도와 강원도, 함경북도, 충청북도의 일부 지역들에서 많이 산출된다.

친왈드 운모는 리시야 운모와 같이 리시움의 원 광석이다. 용도도 거의 같고 산출역시 거의 함께 된다. 함경북도, 충청북도의 일부 지역들에는 그의 단독적인 산지들이 있다.

쎄루석은 쎄리움의 원광석이다. 쎄리움은 철, 닉겔, 코발트 등과 합금하여 발화 합금을 만드는 바 이는 라이타돌, 가스 점화기, 광탄 등에 사용하며 그 외에도 쎄륨의 산화물은 도자기의 착색 아니린 염료 자오선을 제외하기 위한 특수 초자의 제조 등에 리용된다. 강원도는 우리 나라에서 그의 중요 산지로 되고 있다.

모나즈석은 쎄리움과 호리움의 원광석이다. 우리 나라는 세계적 모나즈석의 생산국인데 전 조선 각지에 널리 분포되여 있다. 특히 평안남북도와 황해 남도의 해안 지방에는 매우 질이 좋은 것들이 많이 분포되여 있다. 모나즈석에서 얻은 호리움은 알미늄, 철, 월프람과 합금하여 라디오 진공관, 백열 전구, X선관 등의 제조에 사용되며 그 외에도 마그네슘 분말과 혼합하여 연기가 발생하지 않는 섬광재로 사용된다.

록주석은 베리움의 원광석인바 조선의 각지에 매우 풍부하게 매장되여 있다. 베리움은 X선을 잘 통과 시키는 성질이 있음으로 X선광의 창으로 리용되며 기타 다른 금속과의 합금제로도 리용된다.

콜롬부석은 탄타룸과 니오비움의 원광석이다. 이는 진공관의 전극 스테인레스강 및 기타 리화학 방면에 리용되는 각종 기구 제조에 리용된다. 중요한 산지는 평안북도와 강원도의 일부 지역들을 비롯하여 충청북도의 단양군 전라북도의 금제군 등지이다.

동우랑광은 우라늄의 원광석인데 평안북도는 우리 나라에

서 동우랑광의 중요한 산지이다. 동우랑광에서 얻어지는 우라늄은 백열 전등, X선광 등에 리용되며 그 외에도 그의 산화물은 요업 방면에서 착색용으로 널리 리용된다.

이상에서 우리들은 우리 나라의 풍부한 지하 자원들과 그의 분포 상태 및 용도들에 대하여 개략적이나마 알게되였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새삼스러이 우리 나라의 그 풍부한 자원들에 대하여 감탄을 금치 못한다. 실로 우리 나라 강산은 흑연 (세계 제 1위) 을 비롯하여 금, 월프람, 모리프덴, 마그네싸이트, 중정석, 운모, 형석 등 (이것들은 모두 세계 제 10위 이내) 으로 둘려 쌓인 황금의 강산이다.

그렇건만 인민이 주권을 잡지 못한 지난 시기에 있어서는 이 풍부한 자원들이 항상 미, 일, 영, 외래 침략자들의 가혹한 략탈의 대상으로 되여 왔었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 자들은 우리 나라가 해방되기전 까지 자기들의 전국 수요량에서 실로 88%에 해당하는 월프람과 85%에 해당하는 모리프덴을 략탈하여 갔으며 또한 일본 전국 수요량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철과 96.8%에 해당하는 형석과 석면, 코발트, 흑연, 운모, 붕소 등의 귀중하고 희유한 광물들을 략탈하여 갔다.

오늘 남조선에 기여든 미 제국주의자들, 역시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훨씬 릉가하는 략탈적 만행으로써 우리의 귀중한 자원들을 략탈하고 있다.

오직 인민의 수중에 나라의 주권이 튼튼히 쥐여진 공화국 북반부에서만이 이 모든 풍부한 지하 자원들은 인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전적으로 리용되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 지역들에는 각종 유용 광물들이 특히 풍부히 매장되여 있다. 이것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위하여 그의 물질적 담보로 되는 공화국 북반부의 민주 기지를 강화함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실로 우리 나라의 지질 학적 특성으로 보아 금후 탐사 사업을 일층 강화 한다면 그 얼마나 많은 광산들이 새로 발견될 것이랴!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들의 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이여! 조선 로동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그의 개발 리용에서 항상 앞장을 서자! 선렬들이 피흘려 지켜낸 강산에서 사회주의 새 살림의 꽃동산을 가꾸기 위하여 땅 속의 보물들을 보다 많이 캐내자!

영화 소개

잘 가거라!

이 영화의 이야기는 8월의 뜨거운 날들에 벌어진다.

얼마 안 있으면 고급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젊은 청년 안드레이 아웨린도 앞날에 대한 희망은 컸다. 대 학자의 아들인 그는 어려서부터 부족한 것 없이 귀엽게 자라났다. 특히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하나 빼 놓지 않고 보장해 주었다. 이런데로부터 안드레이는 제멋대로 자라게 되였다. 그에게는 그릇된 소 영웅심이 많았고 한편 사소한 일마저 부모들에게 의탁하는 주체 없는 생활을 하게 되였다.

대학에 입학하는 문제도 안드레이에게는 하등 걱정 될 것이 없었다. 보통 성적으로는 대학에 입학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안드레이는 시험 준비를 아주 게을리 하였다. 그는 자기 실력으로서는 입학 시험에 합격 할 가망이 없었으나 자기 일에 대해서는 백방으로 돌봐 주는 어머니를 믿는 마음에서 그러했다. 그리하여 종일토록 친구들과 함께 여기저기 싸다니는 것으로 세월을 보낸다.

이러한 어느날 뜻 밖에도 머나먼 촌에서 아웨린의 생질인 알렉쎄이가 대학 입학 시험을 치러 왔다. 전선에서 아버지를 잃은 이 청년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일찍부터 가정에서 자주적인 생활을 하여왔다. 생활을 통하여 그는 많은 시련을 겪었다. 진실하고 생각하는 면이 깊은 그는 안드레이의 생활과는 전혀 달랐다. 로동을 즐기며 꾸준한 노력을 통하여 자기의 참다운 리상을 실현해 보려는 그의 고결한 의지는 안드레이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었다. 그러나 날이 가면서 알렉쎄이는 안드레이에게 마음이 쏠리게 된다. 아직은 그가 철이 없고 미숙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순박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알렉쎄이의 영향을 받아 경솔하나 본성은 소박한 안드레이는 자기의 일거 일동을 가슴깊이 생각하게 되였다.

안드레이는 농산 기사로 되려고 하는 알렉쎄이의 꾸준한 노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뚜렷한 목표에 무척 감동되여 생활에서 새로운 신념을 가지게 된다.

그는 알렉쎄이와 같이 생활에서 자립적으로 되고 싶었다. 끊임없이 사소한 것 하나 빼 놓지 않고 돌보아 주는 부모의 보호로부터 벗어나고 싶였다.

끝없이 넓은 전야에서 뜨락또르와 콤바인이 달리며 무르익은 오곡을 거두어 드리는 보람찬 농촌 생활이 그리워졌다. 그 속에서 일하며 배우고 싶였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농촌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보람 있는 역군으로 되여야 겠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 이리하여 안드레이는 그의 어머니가 사방으로 뛰여 다닌 끝에 남편의 친구인 유명한 어떤 아까데미크 한테서 대학 총장에게 보내는 《추천서》 한장을 받아 왔지만 그를 거부하고 때마침 대학 시험에서 떨어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 가려는 알렉쎄이를 따라 떠나기로 결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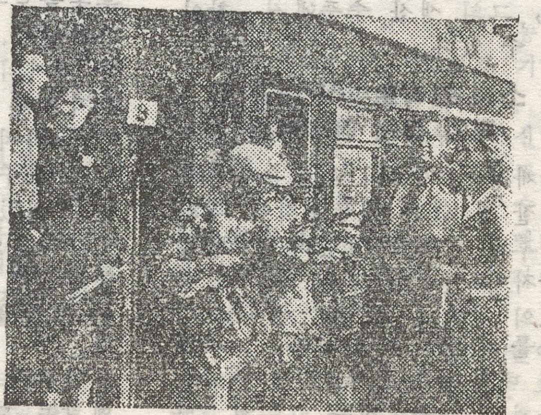
어머니의 애원도 동무들의 충고도 아버지가 얼리는 것도 그의 굳은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다.

아들에게서 일찌기 볼 수 없었던 이러한 완강한 태도에 감동된 부모들도 이제는 항복할 수 밖에 없었다.

이리하여 얼마전 까지만 하여도 철이 없였던 안드레이는 당당한 투사로서 공산주의 농촌 건설의 광활한 길로 향하여 떠나가는 것이다.

이 영화의 내용은 우리 나라의 청년 학생들에게 훌륭한 교훈으로된다.

전후 시기에 우리 나라의 수많은 청년 학생들은 농촌으로 진출하였다. 사회주의 협동화의 위대한 생활의 꽃이 만발하고 있는 농촌으로 지식 청년들을 부른 조선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호소에 그들은 열렬히 호응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일부 청년 학생들은 그렇지 못하였다. 대학 입학 시험에 떨어진 고중 졸업생들. 전문학교 입학 시험에서 떨어진 초중 졸업생들, 이들 가운데는 《농사는 못지여 먹겠다》고 하면서 딴 궁리를 하는 동무들이 있는 것이다. 즉 그들은 자기의 친척이나 아버지의 친구들 가운데 높은 사람들이 없는가를 물색한다. 이리하여 그들을 통해서 대학에 억지로 입학하려고 뛰여 다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미래를 내다 보지 못하는 암둔성의 표현이며 《출세》를 꿈꾸는 낡은 사상 잔재의 표현인 것이다.

안드레이와 그의 생질인 알렉쎄이의 형상을 보라! 대학 입학 시험에 떨어졌지만 조금도 실망하지 않고 종전보다 몇배나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농촌에서 일할 것을 결심하는 알렉쎄이, 농산 기사가 되겠다는 자기의 리상에 대한 그의 열렬한 사상과 확신, 그의 이런 사상의 영향 밑에 개조되여 가는 안드레이의 형상은 우리 청년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생활의 모든 면에서 일찍부터 자주성 있게 자기의 발로 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쏘련농업의 어제와 오늘



오 민 성

위대한 10월 혁명이 있은 때로부터 40년이 지나갔다. 수 만년을 두고 내려오는 인류 력사의 끝없는 흐름에서 40년간이란 그리 긴 세월이 아니다.

그러나 이 40년간에 쏘련의 농촌 경리에서는 일대 비약이 이루어졌는바 그로 말미암아 오늘의 쏘련 농업은 제정 로씨야의 그것과 비하면 천양지 차이를 이루고 있다.

그런 차이는 무엇에서 찾아 볼 수 있는가? 그것은 주로 그의 로대, 그의 기술 장비 수준, 그의 생산 수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소농 경리로부터 대규모적인 집단 경리에로

제정 로씨야의 농업은 아주 보잘 것 없는 소규모적인 극히 락후한 형편에 있었다. 전국 각지에 널려져 있는 약 1천만 호의 농호가 제가끔 자기의 경리를 운영하고 있었다. 토지의 대부분은 인구의 약 16%에 불과한 황족, 지주, 승려 및 부농들에게 속했었다.

수 많은 빈농민들은 당시 그들이 말한 그대로 닭조차 놓아 줄 곳이 없을 정도의 조그마한 땅 쪼각에 매달리여 고독하게 농사를 지였다. 그것마저 없는 빈농민들은 지주와 부농들의 머슴사리로 목숨을 부지하였다. 혁명 전 총 농호의 30%는 말이 없었고 34%는 농기구가 없었다.

토지의 개인 소유 제도에 기초한 이러한 소농 경리의 조건하에서 근로 농민들은 지주와 부농들로부터 가혹한 착취를 당하였다. 그들은 많은 경우에 자기의 년간 수입을 넘는 소작료와 토지 구입비를 지주에게 바치였으며 자기 농사보다도 지주를 위한 부역을 더 많이 했었다.

그리하여 제정 로씨야의 빈농민들은 거지와 별로 다름 없는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미 옛말로 되여 버렸다. 10월 혁명 후 쏘련 공산당의 령도하에 실시된 사회주의적 농업 집단화로 말미암아 쏘련의 농촌 경리에서는 질적 변화가 일어났다.

쏘련의 농업은 종래의 토지와 농기구의 개인 소유 제도에 기초한 소농 경리로부터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에 기초한 대규모적인 집단 경리로 넘어갔다.

오늘 쏘련에는 8만 5천 7백 개의 꼴호즈가 있으며 이에는 1천 9백 70만의 농호와 약 3억 9천 7백만 정보의 농경지가 망라되여 있다. 한 개 꼴호즈에는 평균 229호의 농호와 4천 632 정보 이상의 농경지가 망라되여 있다.

꼴호즈 외에 1955년 말 현재로 쏘련에는 각각 수천 정보의 경작지를 가지고 있는 5천 134 개의 쏩호즈 (국영 농장) 가 있다.

쏘련과 같이 이처럼 대규모적인 농촌 경리를 가진 나라는 아직 없다.

꼴호즈 제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쏘련 농민들은 온갖 착취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단시일내에 부유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리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농민들로 되였다.

원시적인 농업으로부터 기계, 전기화된 농업에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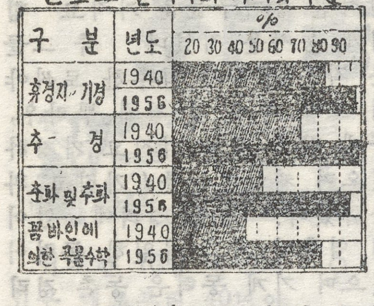
짜리 로씨야의 농민들은 원시적인 농기구들을 가지고 힘겹게 농사를 지였다. 즉 그들은 각종 쟁기와 락후한 로씨야식 보습, 목제 및 철제 뿌라우, 목제 번지 등을 가지고 기경하였으며 채들뱅이를 가지고 파종하였다. 농촌 경리에 있어서 역축이 거의 유일한 동력이였으며 기계 동력은 농촌 경리 전체 동력의 1% 이하였다. 심지어는 사람이 연장을 메고 밭을 갈았다. 1915년에 로씨야에는 외국에서 사들인 165대의 뜨락또르가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쏘베트 정권하에서 쏘련의 농업에서는 진정한 기술 혁명이 이루어졌다. 중공업의 급속한 발전, 농촌 경리의 대규모적인 집단화로 말미암아 쏘련의 농촌 경리에는 각종 선진적인 농기계들을 광범히 도입할 수 있게 되였다.

전쟁 전에 벌써 쏘련의 농업은 세계에서 가장 고도로 기계화된 농업으로 전변되였다. 전야에는 말이나 뿌라우 대신에 수십만 대의 위력한 뜨락또르들이 움직이게 되였고 추수는 낫으로서가 아니라 몇 백배나 더 능률적인 꼼바인에 의하여 수행되게 되였다.

1940년에 이르러 꼴호즈들에서의 작업의 기계화 수준은 휴경지 기경에 있어서 83%, 추경

꼴호즈 들에서의 기계화 수준



에 있어서는 71%, 춘파 및 추파에 있어서는 52—53%, 꼼바인에 의한 곡물 수확에 있어서는 43%에 각각 도달하였다.

전후 시기에 농업의 기술적 장비는 보다 거대한 규모에서 급속히 장성되였다. 그리하여 전쟁 전 시기에 비하여 지금 쏘련의 전야에는 몇 배나 더 많은 농기계들이 동원되고 있다.

지난해에 쏘련의 농업에서는 1백 68만 7천 대(15마력급으로 환산하여)의 뜨락또르와 65만 8천 대의 화물 자동차와 39만 4천 대의 곡물 꼼바인이 사용되였다. 현재 농촌 경리에 리용되는 전체 동력에서 기계 동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94%에 달하고 있다.

오늘 쏘련 농촌에서는 힘든 일을 인력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없다. 힘드는 일은 모두 기계가 수행하고 있다. 즉 꼴호즈들에서의 기계화 수준은 휴경지 기경에 있어서 98%, 추경에 있어서는 99%, 곡물 파종에 있어서는 94%, 꼼바인에 의한 곡물 수확에 있어서는 81%에 달하고 있다.

이밖의 가지가지의 작업들에서도 기계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례를 들어 감자를 파종하는 것도 기계로 하는데 감자 파종기 《에쓰•까게—4》는 70 쎈치메터의 사이를 두고 단번에 네 줄씩 감자를 심어 나가는데 매 포기에 두알 내지 세알씩 정확히 감자씨를 놓고는 이어 비료를 준 다음 흙을 덮어 준다. 이 기계로서는 하루에 8—10 정보의 면적에 감자를 파종할 수 있다. 심지어 감자나 소채류에 덧거름을 주며 북을 도꾸어 주는 일도 기계로 한다.

금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가물이 심하여 발곡식에 물을 주는 데 막대한 로력이 소비되였다. 그러나 쏘련에서는 이동 강우기를 리용하여 인력으로 하는 것보다 몇 백배나 더 능률적으로 밭에 물을 주고 있다. 쏘련에서 새로 설계된 인공 강우기는 1주야에 5백 정보 이상의 땅에 물을 줄 수 있다.

농촌 경리의 기계화와 함께 전기화 수준이 날로 높아 가고 있다.

오늘 쏘련에서 전기를 리용

하고 있는 꼴호즈 수는 전체 꼴호즈 수의 거의 절반에 달하고 있다. 농기계 뜨락또르 정소와 쏩호즈는 거의 완전히 전기화되였는바 1960년에 가서는 그의 전기화가 완성될 것이다. 쏘련의 농촌 경리는 이처럼 고도로 기계—전기화 되여 있다. 농촌 경리의 기계—전기화 수준에 있어서 쏘련을 따를 나라는 하나도 없다.

쏘련에서 농산물과 축산물 생산의 급속한 장성

제정 로씨야는 농업국이였으나 농업 생산 그 자체도 아주 락후한 수준에 놓여 있었다.

쏘베트 시기에 꼴호즈 제도의 우월성과 선진 기계 기술의 광범한 도입에 기초하여 농산물과 축산물 생산이 현저히 장성되였다.

제정 로씨야는 매년 6천만 톤 내지 8천만 톤의 곡물을 생산하였다.

그런데 1940년에 벌써 쏘련에서는 1913년 수준의 거의 2배에 달하는 1억 1천 4백만 톤 이상의 곡물이 생산되였다.

전후 시기에 특히 최근 몇년 동안에 쏘련의 곡물 생산량은 급격히 증대되였다. 지난해에 쏘련에서는 1955년에 비하여 약 20%나 더 많은 곡물이 수확되였다. (1955년도 곡물 총 수확고는 약 1억 4천 7백 42만 톤)그리하여 지난해에 쏘베트 국가의 수중에는 5천 4백 5만 톤 이상의 곡물이 들어 왔다.

최근 쏘련에서 곡물 생산을 급격히 장성시킴에 있어서 처녀지 및 황무지 개간이 큰 역할을 하였다. 최근 3년간에 쏘련 인민은 3천 5백 50만 정보 이상의 처녀지와 황무지를 개간하였는 데 이것은 실로 포도아, 희랍, 벨기, 덴마크 등 4개국의 전 령토를 합친 것 보다도 더 넓고 우리 공화국 북반부 총 경지 면적의 18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쏘베트 시기에 공예 작물 생산도 급속히 장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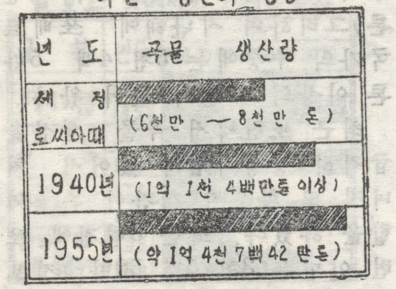
제정 로씨야는 국내에서 소요되는 면화의 많은 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하였다. 그러나 오늘 쏘련은 면화를 자급 자족하고도 남음이 있는 나라로 되였다.

전쟁 전 1940년에 벌써 공예 작물의 파종 면적은 혁명 전

최근 3년간의 처녀지 및 황무지 개간



곡물 생산의 장성



수준에 비하여 2—6배 이상으로, 그의 수확고는 수 배로 장성하였다.

아마, 대마, 사탕무, 해바라기 생산도 급속히 장성되여 오늘 쏘련은 이 부문에서 세계 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쏘련은 짜리 로씨야로부터 아주 락후한 축산업을 물려 받았다. 그러나 쏘련 인민은 당과 정부의 시책을 받들고 사회주의 경제 제도의 우월성에 의거하면서 축산업의 락후성을 청산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완강한 노력으로써 이 분야에서도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쏘베트 주권 40년간 (1916년에서 1955년 기간)에 대유각 가축 두수는 8백 70만두, 돼지는 2천 9백 20만두, 양 및 염소는 4천 6백 30만두가 각각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런 성과가 10월 혁명 후 두차례에 걸치는 전쟁으로 축산업이 아주 심대한 손실을 입은 조건하에서 달성되였다는 것을 반드시 지적할 필요가 있다.

쏘련의 축산업은 특히 최근 시기에 들어 와서 전례 없는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실례로 1955년 10월 1일에서 1956년 10월 1일에 이루는 1년간에 대유각 가축 두수는 일약 3백 30만두나 증가하였다. 또한 1956년 첫 4개월간과 1957년 첫 4개월 간을 대비하여 보면 육류 수매량은 46만 6천 톤으로부터 68만 9천 톤으로, 우유 수매량은 3백 17만 6천 톤으로부터 3백 96만 7천 톤으로 각각 증가되였다.

이리하여 쏘련은 주민 1인당 우유 생산에 있어서는 1958년에, 육류 생산에 있어서는 1960년 내지 1961년에 각각 미국을 따라 잡고 세계에서 첫 자리를 차지 하게 될 것이다.

× ×

쏘베트 주권 40년 간에 농촌 경리 발전에서 이룩한 쏘련의 거대한 성과는 사회주의 제도, 콜호즈 제도의 비할 바 없는 우월성을 확연이 보여 주고 있다.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집단화의 길에서 결정적 승리를 쟁취한 우리 인민은 농업 분야에서 쏘련이 달성한 빛나는 성과에서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광명한 미래에 대한 신심을 더욱 높이고 있으며 쏘련의 기본 경험을 자기의 고귀한 모범으로 삼고 있다.

단편 소설

깨여진 꿈

리 섭 호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온 김 찬기가 방금 담배를 피여 물었을 때 박 준석 내무서장은 전화로 그를 불렀다.

《보름전에 경비대 ○○해안초소에서 체포된 간첩 〈브이 2호〉에게서 우리는 극히 중요한 재료를 알아 내였소. 동무— 그 사람을 기억하오?》

찬기는 15일전에 전초선에서 체포된 사나이를 잘 기억하고 있었다. 나이가 한 30 남짓한 그놈이 제발 살려 줄 것을 애원하던 표랔선이며 그의 유별히 세모꼴 난 눈이며가 일시에 떠 올랐다,

《그 멀쩡한 녀석이 나를 속여 보려고 하거든— 하고 서장은 쾌활하게 웃고 나서 말을 계속했다 —— 그 놈이 바로 원산 역전 해방탑 아래에서 자기의 책임자와 만나기로 약속이 된 모양이요. 그런데 그놈은 자기가 만날 책임자를 모르고 있단 말이요. 놈들은 그 어떤 암호에 의해서 만나기로 되여 있소.》



내무 서장은 담배를 꺼내 물면서 무엇인가 한참 생각하는 듯 하더니 찬기에게 세세한 임무를 주고 그와 헤여지면서

《침착하게 행동해야 하오》 하였다.

서장은 아까 김 찬기가 들어 왔을 때 들여다 보던 까닭 모를 종이쪼박——체포된 간첩이 자기 책임자에게 전달하기로 되여 있는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 보았다.

리 형

그간도 건강하리 라고 믿소 나는 무사하오. 이제낏 보내준 자료는 잘 받았소

이번에는 또 페를 끼치게 되였소. 부탁은 다름 아니라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의 사업을 잘 방조해 주시요. 구체적인 것은 다음 기회에 미루고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이만 총총. 박 순벽

(모순이다.)

서장은 편지를 도로 테블 우에 올려 놓으면서 혼자 생각하였다. 이 편지에는 어쩐지 진지한 데가 없고 더우기 왜 하필 이런 글을 써 보냈는가 하는 것에 주의가 미쳤다. 교활한 적들은 이렇게 어리석은 짓은 안하는 것이다.

그는 멀쩡하게 생겼으나 거의 백치에 가까운 <보아 2호>의 두서 없는 증언보다 더 많이 편지가 믿음직해 보였다. 이 편지 내용에 그 어떤 암호가 숨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적들이 이 편지를 쓴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 옆방에 있는 리 수영 동무를 불렀다.

젊고 용감하나 좀 덤비는 성미를 가진 리 수영이가 나타났을 때 서장은 《이 편지를 봉투에 잘 넣어서 감정을 받아 오도록 올려 보내시요. 조심히 취급해야 하오.》 하고 지시하였다.

× ×

바로 경비대 ○○ 해안 초소에서 기여드는 간첩을 체포한 그날로부터 사흘이 지난 날 밤이였다. 례성강으로 뻗은 계곡을 감싸 안은 무명 고지 수림 속에서 한 사람의 농민이 내려 오고 있었다.

그가 질머진 지게에는 두개의 큼직한 풀단이 놓여 있었고 손에는 시퍼렇게 날이 선 낫이 들려 있었다.

그가 입은 낡은 무명 통바지에는 개흙이 묻어 있었고 휘죽신이 젖어 있었다.

늦은 아침 때 즘해서야 그는 례성강의 한 지류를 이룬 실래천을 끼고 작으마한 어느 한 마을의 어구에 이르렀다. 오랜 느티 나무가 푸지게 그늘을 던지고 있는 언덕바지에서 그는 오붓하게 자리 잡은 마을을 내려다 보았다.

그는 동리로 들어가지 않고 실내천의 강변에 가서 버들 숲을 리용하여 재빨리 지게를 벗어 놓고 풀단을 내리웠다. 그 다음 그는 아래 풀단을 헤치고 그 속에서 인민군 배낭을 끄집어 내였다.

그 속에서 인민군 하전사 복을 꺼내서 재빨리 입고 배낭 끈은 알마춤이 죄우고 나서야 그는 꺼내 놓은 건빵을 씹으면서 주위를 살펴 보았다.

그리고는 강변의 모래를 파고 벗어 놓은 무명 통바지 저고리와 낫을 묻어 놓고 발로 꽁꽁 다진 다음 지게를 마사서 강에 띄워 보냈다. 풀단마저 강에다 밀어 넣은 후 그는 자리를 떠서 동리로 들어갔다.

모표 없는 군모'견장 없는 전사 복을 입고 배낭을 진 이 나무랄데 없이 매끈한 이 청년을 제대 군인이 아니라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청년은 그 길로 북계발 원산행 렬차가 다니는 역으로 향하였다.

그날 저녁 이 제대 군인은 역전 앞에 있는 개인 려인숙에 들었다.

저녁을 먹고 그 자리에 들어 누운 그는 처음에는 극도로 긴장된 가운데서 우'방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렸고 그 다음에는 차차 안정된 가운데서 듣다가 드디여는 주의 깊게 그 담화를 엿듣기 시작하였다.

《난 M련대가 해산돼서 제대만 되지 않았더라면 위생 지도원 공작을 했을께야》 하고 굵은 저음으로 말하는 음성이 들려 왔다.

《아직 M련대는 K시에 있겠지?》하고 애티나는 상대방의 목소리에 《그럼 지금은 ○○ 사단이 우리 련대와 교대했어》 하고 처음의 저음이 대'구했다.

《○○ 사단장 아바이는 아직도 김 ○○ 그분인가?》

《그분이지, 참 좋은 어른이야……》

이렇게 밤 늦도록까지 하는 두 사람의 담화를 통해서 아래'방에 있는 그 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우'방에 있는 두 사람은 오랜 고향 친구이며 전우인데 이곳에서 3년만에 우연히 만난 사이라는 것, 굵은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은 K시에 있던 M련대가 얼마전에 해산되는 바람에 대부분의 그 성원들과함께 제대된 군인이라는 것, 애티나게 말하는 사람은 이미 3년 전에 제대되여 수방직 공장 통계원으로 일하면서 현재 원산에 출장중이라는 것 등을 알아 냈으며 ○○ 사단장이 누구이라는 것도 알아 낼 수 있었다.

물론 이 젊은 사람은 이 모든 것에 흥미를 느꼈지만 그보다 더욱 그를 기쁘게 한 것은 그 굵은 목소리의 사람이 속해 있던 사단 본부의 위치를 알아 냈다는 그 사실이였다. 그가 원산에 들렸다가 반드시 현재 인민군 사단이 있는 그 군 소재지로 가야 했기 때문이였다' 그것은 이 젊은 사람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 마을이였다.

잊을 수 없는 어린 시절이 삼삼이 회상되였다. 그때에는 군 소재지가 아니라 면 소재지였다. 아버지는 면장이 였고 형은 군청의 축산 기수였다. 서울까지 가서 중학을 2년간 다니 다가 난봉을 피웠기 때문에 퇴학을 맡고 고향으로 돌아와 하는일 없이 빈둥 빈둥 놀면서 살아 갔다.

퇴폐적인 시집을 옆에 끼고 작인들의 원도막으로 돌아 다니면서 도령님의 대우를 받으며 수박을 먹는 맛이란…

《제길—어디 두고 보자》

하고 그는 우'방에서 들리는 코고는 소리를 들으며 혼자 중얼거렸다.

이제 정각 9시에 찬기는 중고품 가죽 가방을 들고 역전 해방탑 아래에 가야한다. 반드시 중고품 가방 짝으로는 세루로이드 삼각자의 끝으머리가 뵈야 하며 상의의 단추 다섯개 중에서 세번째 단추를 채우지 말아야 하며 왼손에는 담배를 붙여 들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제대 군인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배낭을 지고 견장 없는 전사복을 입은 그의 모자 단추 하나는 떨어져 있으며 턱 밑에는 눈에 띄울만큼한 검은 기미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책임자》, 인데 이 책임자는 바로 자기에게 다가와서 묻는다. 《북계행 렬차가 몇시에 있습니까?》

그러면 찬기는 대답하면서 곧 담뱃불을 끊다. 《나도 북계행 렬차를 기다립니다. 아직도 시간이 넉넉합니다.》

《아니 철원에 계신 박 선생이 아닙니까?》 하고 상대방이 갑자기 알은 체를 하면서 환성을 올리면 찬기는 《이거 김 동무 참 오래간 만인데—》 하고 손을 맞잡으면 그만이다. 그리고 어느 음식점에 들어 가자고 찬기가 그에게 권고할 것이며 《책임자》는 편지를 받고 그에게 지시를 줄 것이다. 그 다음 그 《책임자》가 음식점 문밖으로 나가게 되면 감쪽 같이



체포된다.

찬기는 정각 9시에 해방탑 아래에 와서 누구를 기다리는 듯 서성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벌써 담배를 석대씩이나 피워 물었으나 제대 군인은 나타나질 않았다.

찬기는 사흘을 거퍼 나갔으나 《책임자》는 영영 나타나지 않았다. 찬기의 공작은 실패로 돌아 가고 말았다·

박 준식 내무 서장은 찬기로부터 공작 실패에 대한 암호 련락을 받고 속히 돌아올 것을 명령하였다.

사건은 암초에 부닥쳤다. 그러나 어쨌던 이 암초를 제거해야만 한다. 수영 동무가 봉투를 들고 들어 왔다.

《그 편지에 대한 감정 회보가 왔습니다.》

서장은 곧 봉투를 뜯었다. 감정 결과 그 편지의 여백에다가 쌀뜨물로 쓴 비밀요서 내용이 옥도정기에 의하여 로출되고 있었다.

信用(신용)이 되면 生(생)하고
信用(신용)이 안되면 殺(살)하라
信用(신용)이 되거던 ㅂ읍의 사진사 한테 들려서 범 바위굴을 알아서 내 부탁하던 件(건)을 해결해 보내고 계속 그 사진사를 利用(리용)하여 머물러 있을 것
K·T

서장은 몇번이고 이것을 곱씹어 읽었다. 모든 것이 리해되였다. 그러나 단지 범 바위굴을 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사건은 실마리가 잡히기 시작하였다. 이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범 바위굴의 비밀을 당분간 몰라도 된다. 범 바위굴의 비밀은 오직 그《책임자》나 《사진사》라고 하는 놈을 잡았을 때에만 풀 수 있는 숙제로 남아 있다.

서장은 그 편지의 사진사라 고 쓴 대문에 파란 색 연필로 줄을 그어 놓았다.

…………………

실패한 찬기가 돌아 온날밤 내무 서장은 그에게 《아마놈은 우리들이 자기의 뒤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게요. 찬 기 동무— 이것을 보시요.》 하면서 편지를 내 보였다.

찬기는 옥도 정기의 바탕에 신기하게 로출된 글자를 바라 보면서 띠염띠염 읽어 내려 갔다.

《그 비밀 편지가 우리에게 <책임자>가 그 어느 곳에 숨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소.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그 편지가 우리를 크게 돕고 있다는 사실이요. 어디 그 편지를 분석해 볼가요? 여기 가까이 오시오.》
두 사람은 서로 마주 앉았다.

《이 편지를 보면 원래 간첩 <브이 2호>를 적들은 그렇게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확연이 알려지거던. 그래서 신용이 되면 살리고 신용이 안되면 죽이라고 적들은 <책임자>에게 명령하고 있소. 그래 만일 <브이 2호>가 믿을만 하다고 생각되거던 <ㅂ>읍의 사진사에게 들려서 범 바위굴의 위치를 알아 내서 그 곳을 통하여 부탁하던 건 즉 책임자가 수집한 첩보 자료를 보내 달라는 것이요. 그리고 책임자는 계속 사진사를 리용하여 머물러 있기로 되여 있소. 어떻소? 알만하오.》 하고 서장은 정렬에 찬 눈으로 찬기를 바라 보았다.

담배 한대를 붙여 문 서장은 찬기에게 말하였다. 《우리 군내에 있는 사진사를 모두 알아내야 하겠소. 빠르면 빠를수록 좋소.》

《네 들었습니다.》

× ×

군내에 있는 사진사들을 조사해 낸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과업이 아니였다.

ㅂ읍에는 사진사래야 불과 두사람 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모두 생활 향상 협동 조합에 망라되여 있다.

두 사람의 사진사 중 한사람은 당원이였으며 한 때 도일보의 사진 기자로 있다가 신병 관계로 퇴직하여 현재 사회 보장을 받고 있는 조합원이고 또 한사람의 사진사는 자기의 두 아들을 전선에 내 보낸 아버지였다. 그는 이두 사진사 중에서

한 사람을 만나기로 마음 먹었다. 그는 두아들을 전선에 내 보낸 50 남짓한 김 성보 령감을 그의 집으로 찾아 갔다.

이 오랜 사진사에게서 단서로 될만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간첩의 편지에 있는 사진사라는 구절은 무엇을 말해 주는 것일가?

찬기는 사진사에게 사의를 표하고 막 자리를 뜨려고 할 지음에 사진사가 말하였다.

《이 읍에 요즘 이사온 예'날 사진사가 한사람 나한테 갓 찾아온 일이 있습지요만은…》

찬기는 그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었다.

《이름이 뭐라던가, 이렇게 건만증이 있구서야… 여보—게 있소?》 하고 령감은 아래 방에 대고 찾자 사진사 보다 더 늙어 보이는 로파가 새'문게 나타났다.

《요전번 우리 협동 조합에 붙여 달라던 그분이 이름이 뭐라더라? 요끌에 온 젊은 사람 말이요.》

《황 기철이지 뭐에요.》

《그렇지 황 기철이지. 난 원 이렇게 정신이 없답니다. 내 둘째 아들 이름과 비슷해서 골 속에서 뱅글뱅글 돌면서도 … 그 사람은 원래 이곳 사람이였는데 어릴 때 원산에 가 있었는데 거기서 아마 사진을 배운 모양입디다요. 원산서 개업하고 있다가 사진기를 도적 마치고 내려 왔다는군요. 가시집이 요끌에 있습지요.》

《요끌이요?》

《네 사는 형편도 괜찮습지요. 예'날 왜정때는 면내에서 한다하는 갑부였을 뿐만 아니라 가시 아버지가 면장 노릇을 했습지요. 지금은 다 남으로 도망가고 처형네만 남아 있습지요만……》

《그래 그 황 기철이가 원산에서 사진업을 했다는 것은 사실인가요?》

《사실이구 말구요. 그건 제가 잘 알지요. 원산에 내가 갔을 때 한번 봤으니까요. 작년 가을에 갔드랬지요》

찬기는 다시 방으로 들어 앉으며 많은 것에 대하여 그 성실한 사진사와 이야기하였다.

× ×

찬기가 늙은 사진사의 집에서 황 기철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 때 수방직 공장 통계원 최 기설이가 내무 서장의 사무실로 나타났다.

서장은 그를 잘 알고 있는 터이라 반가히 맞이하였으나 기설이는 어깨를 축 떨어 뜨린 채 피'색 없는 질린 얼굴로 《저, 서장 동지 저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서장은 그의 말마디를 주의해서 들었다.

《제가 출장 임무를 맡고 원산으로떠나는날 입니다. 역으로 나가다가 저는 예'적 고향 친구이며 군대에도 같이 있던 친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동무와 함께 식당에 들어가 술을 한잔 했습니다.》

기설이는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엄중한 과오까지 범하게된 전후 사연을 기운 없이 이야기 하기 시작하였다.

서장은 기설이가 좀 경솔한데가 있기는 하나 매우 좋은 청년이라고 리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설이는 좋지 않은 일을 저즐러 놓았다.

기설이는 통계 보고를 도에 보내려고 출장가는 도중에서 있은 일을 하나 빼놓지 않고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ㅂ읍으로부터 역은 약 십리 남짓하였다. 그가 차시간에 맞춰 역으로 나가다가 바로 제대되는 예'친구를 만났다. 그들은 술을 한잔 마신 관계로 차시간을 놓치고 개인 려인숙에서 하루 밤 묵고 그 친구를 바래운 후 기설이는 역으로 나갔다.

작은 대합실에는 승객들이 얼마 많지 않았다. 그는 개찰구에 선 제대 군인 한 사람과 인차 터놓은 이야기 동무로 되였다. 그 제대 군인은 무척 쾌활한 동무였는 데 노래를 썩 잘 불렀다. 기설이는 몇마디 하지 않고서 대번 과거 특무장으로있었다는 이 제대 군인이 마음에 들었다.

그들은 같은 자리에 앉아 려행하였다.

《저는 원산에서 내릴 때까지 그 제대 군인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하고 서장이 다급하게 묻자 《그런데 제가 려관에 들었을 때에야 가방에 분명히 넣고 간 통계 보고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기에는 공장 시설과 인원에 대한 통계 보고와 생산 실정에 대한 통계도 포함되여 있습니다. 저는 곰곰히 생각해 보았는 데 아무리해도 그 제대 군인이 이상하게 생각되였습니다. 저는 기차칸에서 너무 골이 아프길래 승강대 있는데 나가서 한 30분 서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은 자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말한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처음엔 지배인에게 보고하지 못하였습니다. 출장 갔다와서 통계 보고를 도에 바쳤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량심에 꺼려 몹시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 왔소?》하고 서장은 기설이의 마음을 좀 풀어 줄 양으로 다정한 얼굴로 그를 보면서 물었다.

《아닙니다.——기설이는 빙그레 웃는 서장을 보고 다시 말을 이었다.——그것도 그렇거니와 바로 오늘 아침에 그 사람을 또 만났습니다.》

《무엇이?…》하고 서장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 났다.

《제가 수직을 하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 가는데 바로 그 사람이 요골 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내 소리를 못 들은 듯 하였습니다. 그사람이 바로 기차칸에서 친했던 사람임에 틀림 없었습니다. 걸음 걸이와 몸 가짐서껀…》

《그래 동무는 그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지? 그 사람의 얼굴에 어떤 특징은 없소?》

《있습니다. 얼굴에 검은 기미가 있습니다 기미가…》

《뭐, 기미가?!》

《예, 확실히 기미가 있습니다》

서장은 그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그 사진사를 먼저 구인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밤 요골에 있는 외따른 초가집은 소리 없이 포위되였다.

창문에는 불'빛조차 없었고 사람 사는 집 같지 않게 어수선 하였다.

한 사람이 부엌 문고리를 잡자 다른 두 사람은 각각 방문고리 하나씩을 잡았다.

《열엇…》하고 부엌 문고리를 잡은 사람이 낮게 명령하자 세개의 문이 동시에 열리면서 일제히 방안으로 돌입해 들어왔다.

《새였군…》 첫째 사람이 혼자 소리 처럼 중얼거렸다. 그는 리 순영 동무였다. 그러나 우'방에서 어느 누가 소리치는 것을 듣고 그는 방문을 열어 제꼈다.

《죽였습니다.》 전지불은 칼에 사정없이 찔리운 사진사 황 기철이의 시체를 비치였다. 방'바닥은 피로 가득하다.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체포장을 가지고 구인하려는 황 기철은 시체로 되고말었던 것이다. 리 수영은 하사관 한 동무를 시켜 서장에게 련락 보낸 후 현장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조사한 결과 그집에서 5 만분지 1 지도 한장을 얻었을 뿐 이렇다 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얻어 내지 못하고 말았다.

그 지도는 이곳 지형도 였는데 거기에는 례성강 어구에 세군데의 까닭 모를 좌표가 그려져 있었다. 그 좌표들은 모두가 분계선 이북에 처해 있는 지'점이였다.

× ×

례성강은 북쪽에서 감돌아 흐르다가 분계선을 뚫고 이남쪽으로 흘러갔다.

동쪽에 비스듬이 빠졌던 북두칠성이 남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을 때 어떠한 사람이 심산 속의 오솔'길을 따라 례성강 쪽으로 내려 오고 있었다.

그는 곧 늙은 느티나무가 선 낮은 등선 밑에 있는 세째번 바위를 흔들어 들어 내자 텅하니 열린 구멍이 보였다. 그는 재빨리 그속에 숨어 들어 갔다. 그리고 그는 전지를 켜 들었다.



그가 전지를 켠 그 순간 자기의 눈으로 비치는 광선에 그는 소스라처 놀라면서 그만 그자리에 주저 앉고 말았다.

《꼭 말고 손들엇!》 량옆에서 뛰여나온 두사람이 그의 량팔을 끼여 잡았다. 《반항하면 쏜다.》아까의 음성이 다시 들렸다.

처음에 얼이 나갔던 그 사나이는 잠시후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기가 이미 체포되었으며 다시는 자기를 정보 장교로 돌려 주겠다고 약속한 서울로 가지 못하게 된 것을……

그날 새벽에 찬기의 방으로 검은 기미가 얼굴에 있는 사나이가 체포되여 왔을 때 리 수영이는 찬기에게 물었다.

《전 잘 모르겠는 데요. 어떻게 그놈을 잡았는지?》

《어떻게 잡았는가구?》찬기는 아직 애티가 가시지않은 젊은 수영이의 상기된 부드러운 얼굴을 부러운 듯 바라보며 설명하였다.

《우리는 이미 요골 황 기철이의 처남네 집을 감시하고 있었소, 밤 10시에 그놈이 그집에서 기여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는 추격하는 한편 놈들이 수차에 걸쳐 리용한 비밀의 굴—범바위굴을 사전에 포위하고 있었거던.》

《그러면 그 간첩이 다라나면서 왜 자기앞잡이인 그 사진사를 죽였을 까요?》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사실 그놈은 황 기철이를 리용하여 계속 이 지대에 남아서 자기들의 망을 조직하고 폭동을 조직해 볼 작정이였지만 그 사진사는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죽인거요》

《그렇지만…》하고 아직 잘 리해되지 않은 수영이는 물었다. 《그집에 사는 사진사의 처가 없어진 걸로 보아 필경 한 패거리가 아닐까요?》

《아니요. 이번 잡힌 간첩이 그 사진사의 처남이거든요. 말하자면 제 매부를 죽인 셈이지…간첩의 누이는 멋도 모르고 있다가 우'방에서 이상한 기미를 느끼고 올라가 보자 그만 넋이 나가서 분주소에 달려 가서 이 사실을 알렸소.

알겠소?.》

《악랄하군》하고 수영이는 량미간을 찌프리고 혀를 찼다.

《원쑤들은 필요하다면 자기 부모라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악랄하오》

찬기가 서장의 방으로 들어 섰을 때 서장은 벌써 간첩과의 이야기를 끝마친후였다.

《우리가 옳게 판단하였소, 놈은 한번 〈브이 2호〉를 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걸려 들지 않았었소 자 어서 돌아가 쉬시오. 벌써 새벽이요. 그놈의 불청객 때문에 동무의 신혼 생활을 방해해서 미안하오, 어서 돌아가 쉬시요. 어서》

찬기는 거리로 나섰다.

동쪽 하늘이 히끄무레 해 지기 시작하였다. 그는 몹시 피곤하였으나 인민을 지켜 《불청객》을 체포한 의무 실행에 대한 기쁨 때문에 가슴 가벼이 집으로 향하였다.

(우) (화)

두 개 의 코

그림을 매우 좋아하는 한 친구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일하는 짬짬을 리용해서 그림을 그리군 하였다.

어느날 그는 한폭의 반신 초상화를 그리였다. 그런데 그 초상에는 코가 두개 그리여 져 있었다. 이 그림을 본 한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자네는 이것을 사람으로 보는가? 어떻게 한 사람에게 두개의 코가 있을 수 있는가!》고 물었다. 그는 아주 자신 있게 대답했다. 《진정한 예술작품은 반드시 일정한 공식과 틀에서 벗어난 것이래야 하네, 지금까지의 모든 초상들을 보게, 어느 것이고 코가 하나 밖에는 그려져 있지않네, 그런데 내가 또 자기의 초상에다 코 하나만을 그린다면 이 얼마나 혹심한 천편일률이 아니겠는가?》

—《중국 청년》 1957년도 16호에서—

편집 위원회 김 학 연(주필)
김 상 민 김 수 백 박 춘 심
양 동 섭 조 채 현 현 영 호

청년생활 제 9 호 1957년 9월 1일 인쇄
발행소 민 주 청 년 사 1957년 9월 7일 발행

인쇄소—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값 25 원) ㄱ—40598 50,000부



뽈 몰기 경주

(실외 오락)

1. 유희 조직

① 유희자들을 같은 수로 두 편으로 나눈다.

② 뽈 2개, 줄 5메터, 나무 토막 10개를 준비한다.

2. 유희장 및 유희자의 배치

① 유희장은 그림과 같다.

② 유희자들은 출발선을 향하여 각각 1렬 종대로 정렬하며 각 편에서 1명씩 나와 그림과 같이 줄을 잡고 선다.

③ 유희 방법

① 지도자의 신호에 의하여 선두 유희자는 송구식 몰기로써 화살과 같이 나무 토막 사이를 통과하여 뽈을 잡고 줄을 뛰여 넘은 다음 다시 송구식 몰기로 전진하여 뽈을 놓는 지점에 뽈을 정확히 놓은 다음 뒤로 돌아 줄을 뛰여 넘어 달려와 다음 유희자에게 손'벽 치기로써 인계한다.

② 인계 받은 유희자는 앞으로 곧추 달려가 줄을 뛰여 넘어 뽈을 가지고 뒤로 송구식 몰기로 전진하다가 줄을 뛰여 넘은 다음 나무 토막 사이를 송구식 몰기로써 통과하여 다음 유희자에게 뽈을 인계한다.

③ 기수 유희자들은 (1)의 동작을 반복하며 우수 유희자들은 (2)의 동작을 반복한다.

④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뽈 몰기를 먼저 끝난 편이 승리하게 된다.

4. 주의할 점

① 몰기는 익숙 정도에 따라 롱구식 몰기로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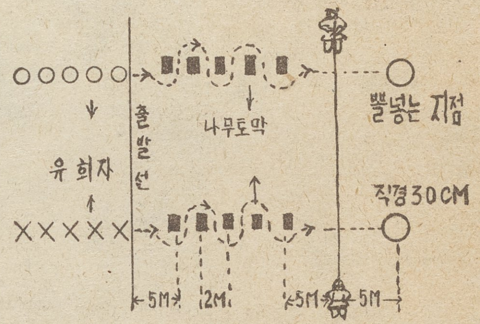
② 뽈을 놓는 지점 밖에 뽈을 놓았을 때에는 무효로 하여 다시 실시게 한다.

③ 줄의 높이는 유희자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조절할 수 있다.

④ 줄을 다치고 넘은 유희자는 다시 넘게 한다.

⑤ 뽈을 몰아갈 때 나무 토막을 넘어뜨린 유희자는 나무 토막을 세워 놓고 몰기를 계속하게 한다.

⑥ 유희가 1회 끝난 다음 기수와 우수의 역할을 교대하여 실시게 한다.



8호의 해답

"어떻게 뗄 것인가?"

